

# myFord

2015 WINTER  
New Year Edition



## Exclusive Diesel Power

디젤엔진의 역사에서 포드가 빠진 적은 없다. 우리나라에 아직은 덜 알려졌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포드 디젤엔진을 얹은 몬데오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 Surprise Show

신형 머스탱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접하는 소식 하나하나가 모두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정보를 알고 있다 해도, 직접 타보면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 트러스와 함께 떠난 경북 대구

대구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토록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다양한 매력으로 점철된 대구로의 여행이 포드 트러스 SHO와 함께 시작된다.



Go Further



**THE ORIGINAL - THE LUGGAGE WITH THE GROOVES**

Patagonia's Original Duffel Bag is made from 100% recycled polyester. It's made with a heavy-duty, ripstop fabric that's designed to withstand the toughest conditions. The bag features a large, roll-top opening for easy access to your gear. It's also equipped with a sturdy handle and a shoulder strap for easy carrying. The bag is available in a variety of sizes and colors. Visit [www.patagonia.com](http://www.patagonia.com) for more information.



EVERY DAY IS THE ADVENTURE



### ‘완생(完生)’을 꿈꾸다

희망과 전진의 상징인 말(馬)로 문을 연 2014년을 포드 고객 여러분은 희망차게 달리는 말처럼 부지런히, 또 행복하게 달려 뜻 깊은 마무리를 하셨는지요.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포드코리아는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포드코리아는 포드의 간판 SUV이자 인기 베스트셀러인 익스플로러, 출시 50주년을 맞은 아메리칸 머슬카의 상징 머스탱과 스마트 대형 세단 토러스, 동급 최고의 가치를 담아낸 팔방미인 포커스 디젤, 포드의 내일을 상징하는 퓨전과 이스케이프 등을 출시, 고객 여러분의 높은 안목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 폭넓은 라인업을 선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앞만 보며 달려온 포드.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어떤 해보다 고객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간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는 결국 고객의 신뢰를 얼마나 받았느냐와 상통한다는 제 생각처럼 고객과 함께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모션, 사회 공헌 활동 등이 풍성한 해였기에 포드코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더욱 신나게 달려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 ‘미생(未生)’이라는 단어가 화자되는 듯합니다. TV 드라마가 아니면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했을 이 단어는 바둑에서 유래한, ‘아직 완전히 살지 못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미생의 반대말은 ‘완생(完生)’으로, 상대가 어떤 수를 두더라도 살 수 있는 집을 뜻합니다. 저는 포드의 완생을 꿈꿉니다. 최고 품질과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거듭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드다운’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생을 향한 포드의 노력은 2015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포드의 아이콘이자 출시 51주년을 맞이한 6세대 올-뉴 머스탱을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포드코리아 최초의 디젤 SUV를 포함해 디젤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명실상부한 ‘파워-오브-초이스’ 즉 선택의 폭을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정재희

국내 최다 판매 수입 7인승 SUV

# 2015 EXPLORER

언제나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  
도시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 동급 최고의 실내 적재공간 (2,283L/23열 폴딩시)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자동 주차 기능
- 차신 이탈 방지 및 경고 시스템
- 오토하이빔 기능을 포함한 바이저는 헤드램프

\*3.5 Limited 기준



Go Further

ford-korea.com

## FORD'S BEST | 5년 10만km 보증서비스 [3년/6만km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서비스 (ESP)]

영등포 02)6941-30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평촌 031)425-2212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부산해운대 051)741-5114	부산수영 051)758-0075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익스플로러 2.0L 에코부스트 : 배기량(cc) 1,999 공차중량(kg) 2,130 저동6단 복합연비(km/L) 8.9 도심연비(km/L) 7.8 고속도로연비(km/L) 10.7 동급 5등급 복합CO2배출량(g/km) 200 ▶ 익스플로러 3.5L Limited : 배기량(cc) 3,496 공차중량(kg) 2,230 저동6단 복합연비(km/L) 7.7 도심연비(km/L) 6.7 고속도로연비(km/L) 9.4 동급 5등급 복합CO2배출량(g/km) 235 \*위 연비는 표준모드이며 약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80-300-3673, 02)517-4357 \*전국 24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myFord

2015 WINTER  
New Year Edition

## Play with Ford

### 04 CEO Greeting

‘완생(完生)’을 꿈꾸다

### 08 Ford Story\_윌리엄 클레이 포드를 기억하며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2인자'로서 포드자동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윌리엄 클레이 포드의 일대기.

### 10 Ford with Media\_Social Change of Ford

지역사회 후원, 사람들 삶의 질 업그레이드,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 포드코리아가 국내에서 펼치는 2014년 문화 마케팅 사례를 모았다.

### 12 Smart&Technology\_The Value of Safety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선정한 'Top Safety Pick'이자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까다로운 평가를 만족시켜 안전도 최고 등급을 휩쓴 포드의 다양한 세이프티 테크놀로지.

### 13 Car Care Tip\_새 자동차 길들이기

바른 운전 습관은 물론 자동차의 엔진, 서스펜션 등 주요 구성요소가 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초기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 14 Focus on\_Ford's Warranty Guide

포드의 남다른 서비스 정신이 집약된 워런티 & 서비스 프로모션

### 16 New Ford Life\_Exclusive Diesel Power

디젤엔진의 역사에서 포드가 빠진 적은 없다. 우리나라에 아직은 덜 알려졌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포드 디젤엔진을 얹은 몬데오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 20 Ford to Ford\_Superstar History

1998년 탄생해 지금까지 1200만 대 넘게 팔린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 포커스의 혁신적 진화.

### 24 Driving 1\_Surprise Show

신형 머스탱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접하는 소식 하나하나가 모두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정보를 알고 있다 해도, 직접 타보면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 28 Take 5\_Mustang Spirit

지난 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머스탱이 속도, 정교함, 효율성 등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 30 Driving 2\_Two Faces of Explorer

도시와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익스플로러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주목할 것.

### 32 Gourmet Road\_토러스와 함께 떠난 경북 대구

대구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토록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다양한 매력으로 점철된 대구로의 여행이 포드 토러스 SHO와 함께 시작된다.

### 38 Theme Travel with Ford\_

#### Land & Sea Adventures, Alaska

거대한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를 탐험할 수 있는 알래스카로 포드 이스케이프와 함께 떠나보자.

### 42 Driving Course\_강약의 조화

머스탱을 타고 한껏 흥분된 마음을, 바다를 바라보며 공원을 산책하며 진정시키자. 송도 신도시에 가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다.

## People

### 46 Ford Interview\_이한모터스 이승준 대표이사

지난해 포드 정식 딜러사로 합류해 거침없이 전진하며, 이한모터스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이승준 대표이사를 만났다.

### 48 Celebrity Interview\_

#### 포드 올-뉴 머스탱과 함께한 카레이서 박성은

가슴 뛰는 유일한 일을 하기 위해,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달려온 카레이서 박성은과의 인상적인 만남.



## Trendy

### 52 Ford Guy\_Wishing you a Joyous FOCUS!

각종 기술을 집약해 정상에 오른 IT 제품의 향연이 포드 포커스와 함께 펼쳐진다.

### 58 Beauty\_For Ski Holiday

스키어와 보더들이 체크해야 할 스키 시즌 비포 & 애프터 케어 가이드.

### 60 Gift Item\_Winter Scents

실내에 우아한 온기를 더해줄 홈 프래그런스 제품을 꼽았다. 코끝에 향기가 스칠 때마다 선물한 이의 마음까지 오랜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 62 Driving Music\_Oh, My Diva!

남다른 존재감으로 뛰어난 음악성을 선보이는 매혹적인 디바들의 음반을 소개한다.

### 63 Ford Choice\_Mustang Collection

머스탱 마니아라면 누구나 가슴 뭉클 만한, 소장 욕구 200%의 머천다이징 아이템.

## Life Style

### 64 Chef's Table\_New Classic

프렌치 레스토랑 '루이쌍끄'의 이유석 셰프와의 조우. 그의 남다른 요리와 인생 철학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

### 68 Ford Place\_길 위에서 만난 광주의 멋

빛고을 광주엔 숨어 있는 핫 플레이스가 많다. 무등산 너른 풍연 아름다운 박물관이 서 있고, 작은 골목길을 돌 때마다 유서 깊은 근대 건축물 등을 만날 수 있다.

### 70 Outdoor Leports\_Ice Climbing

크램폰을 단단히 조이고, 아이스 툴을 찍으며 한 발 한 발 오르는 빙벽 등반의 계절이 다가왔다. 초보자를 위한 빙벽 등반 입문 가이드.

### 72 Golf Tour\_야스 링크스 아부다비 골프 클럽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야스 링크스 아부다비 골프 클럽'은 김탄사가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골프장이다.

### 76 Class\_리더의 존재감 키우기

마거릿 대처, 벨스 만델라, 버락 오바마 등 존재감이 남다른 리더가 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실력을 성공으로 바꾸려면 자신의 잠재력을 어필할 수 있는 존재감이 필요하다.

### 77 Dealer News

포드의 각 딜러사별 주요 뉴스

### 78 Ford News

포드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 80 Line Up

포드 전 차종 제원 정보

### 82 Ford Network

전국 포드 전시장 네트워크

발행일 2015년 1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의 마지막 손자인 윌리엄 클레이 포드. 포드자동차의 최고 경영 일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2인자'로서 포드자동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그의 일대기 속으로 들어가본다.

Editor 이희진 참고 서적 《포드 백년의 저력》 데이비드 마지, 비전 코리아 출판

## 윌리엄 클레이 포드를 기억하며



윌리엄 클레이 포드는 1928년 1월 17일 미시간주에서 에셀 포드와 엘리너 로시안 클레이 사이에 태어났다. 윌리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항공대에 재직했으며, 전쟁 후에는 1947년 6월 마사 파이어스톤과 결혼했다. 마사는 타이어 회사인 파이어스톤의 창업주 하비 파이어스톤의 손녀다. 두 사람은 첫딸 마사 파크 모스(1948년), 둘째 딸 실라 파이어스톤 험프(1951년), 셋째 아들 윌리엄 클레이 포드 주니어(1957년), 넷째 딸 엘리자베스 허드슨 포드(1961년) 네 자녀를 낳았다. 1948년, 할아버지 헨리 포드가 죽은 뒤 윌리엄 클레이 포드는 포드사 이사로 임명되었다. 윌리엄은 1949년, 예일 대학에서 경제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대학의 남학생 사교클럽 'Psi Upsilon' 회원일 만큼 대외적 활동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졸업 후 윌리엄은 포드자동차에서 일하기 시작하며 링컨 컨티넨탈(Continental) 사업을 주도했다. 윌리엄은 당시 에셀 포드가 탄생시킨 포드사의 대표 브랜드 링컨 컨티넨탈을 신형 럭셔리 카인 컨티넨탈 마크 II로 재탄생시켰다. 컨티넨탈의 톱 디자이너 존 라인하트는 "그는 섬세한 취향을 가졌다. 아이디어의 올바른 타이밍을 아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윌리엄은 일생 동안 회사 최고 경영자(CEO)직을 맡지 않았으며, 1949년부터 57년간 이사회 멤버로만 재직했다. '2인자'로서 아버지와 형의 경영을 도운 것. 1957년부터 1989년까지 32년 동안 포드의 디자인위원회 위원장,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축구팀 부회장,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회장, 헨리 포드 박물관 이사회 명예회장, 이베이의 이사회 멤버를 역임하기도 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는 포드사의 부회장을 지냈으며, 80번째 생일을 맞은 2005년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이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운영에만 개입했다. 2014년 3월 9일, 88세인 그는 디트로이트 미시건 주 그로스 포인트 자택에서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윌리엄 클레이 포드는 포드자동차의 디자인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고인의 아들이자 포드자동차 회장인 윌리엄 클레이 포드 주니어는 "아버지는 위대한 재계 지도자이자 회사와 사회에 일생을 헌신한 인도주의자였다"며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다. 포드자동차 창업자 헨리 포드의 손자들 중 가장 오래 생존한 윌리엄 클레이 포드. 그는 할아버지 헨리 포드가 100년 전에 창업한 포드자동차에서 직원과 이사로 반세기 넘게 재직한 역사적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 탑승하는 순간부터 하와이

인천 출발-호놀룰루 외 5개 이웃섬 어디를 가도 같은 요금으로 이용  
미국 서부 10개 도시 및 뉴욕 여정 시 지상낙원 하와이 스타탑오버가 무료  
신규 기종 A330도입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

\*호놀룰루 경유 5개 이웃섬 항공편 탑승 시, 특정 클래스에 한해 추가 요금 없이 제공



지역 사회를 후원하고, 고객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며 진심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 포드코리아가 국내에서 펼치는 다양한 문화 마케팅 활동의 공통점들이다. 또 다른 자동차 문화를 창출하는 포드의 2014년 문화 마케팅 사례를 모았다.

Editor 김미라

## Social Change of Ford

1 2014 포드 환경 프로그램 후원금 전달식 2 SNS 팬들을 초청해 진행된 2014 소셜 캠핑 3 2014 포드 에코 토크! 현장 4 시승 고객에게 2014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의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포드 환경 프로그램(Ford Motor Company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 포드코리아는 2002년부터 13년간 81개 단체에 총 4억6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며 국내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도 심사를 거쳐 후원 단체를 결정하고, 지난 11월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강 주변 중요 지역에서 생태계 보존의 인식을 제고하는 체험학교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녹색환경운동을 비롯해 총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번 후원금 전달식에서는 친환경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소셜 프로젝트 디자이너 엄지홍 대표를 초청해 올해 후원 대상자들과 환경보호 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포드 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차세대 젊은 환경 리더와 함께하는 대학생 환경 포럼 '2014 포드 에코 토크!(2014 Ford Eco Talk!)'를 개최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국내 젊은 리더들이 모여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환경보호 방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MBC 환경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의 김진만 PD가 참석해 '청춘스캐치 환경 강연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워리어스 인 핑크(Warriors in Pink)' 역시 포드자동차만의 특별한 사회 공헌 활동이다. 1993년에 시작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글로벌 유방암 퇴치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도입해 '시승 기부 프로그램', '유방암 예방 클래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Pink Warriors Class)'라는 이름으로, 모녀로 구성된 200여 명의 여성을 포드 신사 전시장에 초청해 진행했다. 현직 유방암 전문의의 '유방암 지식 클래스'와 유방암 예방을 위한 호르몬 분비에 도움 되는 동작을 배워보는 '모녀 커플요가 클래스'를 열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포드자동차 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도 활발했다. 지난 10월에 열린 '포드코리아와 함께하는 소셜 캠핑'이 대표적. '나만의 포드를 만나다'라는 테마로, 캠핑 내내 익스플로러, 이스케이프, 토러스, 퓨전, 포커스 디젤, 머스탱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소개하고 체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포드의 역사와 차량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포드 골든벨 퀴즈', 팀별 포드 차량 소개 영상 만들기 '디스커버 마이 포드' 등 미션 프로그램과 바비큐 파티, 인디밴드 미니 콘서트 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012년 포드 올-뉴 이스케이프 출시에 맞춰 처음 진행한 소셜 캠핑은 업계 최초로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번이 세 번째 행사다.

지난 5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014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 이벤트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전국에서 포드 전 차종을 시승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 8명에게 포드가 21년째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는 UEFA 챔피언스 리그 퍼스트 클래스 결승전 티켓과 포르투갈 리스본 왕복 항공권, 4박 5일 숙박을 포함한 여행 패키지를 증정한 것. 이외에도 아디다스 축구화, 아디다스 피날레 미니볼 등 축구를 사랑하는 고객에게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과 자동차 팬들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는 포드코리아. 2015년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지 기대해보자.

**신기술 터불레이터 탑재로 공기저항 Down, 헤드스피드 Up**

마스터스 챔피언 버바왓슨을 비롯하여 PGA, EPGA 투어프로 30여 명이 2주간 테스트 후 G30 드라이버로 교체

**TURBULATOR TECHNOLOGY**

**PING | G30™**

터불레이터 테크놀러지는 임팩트 시 헤드 크라운의 공기저항을 감소시켜 헤드스피드가 증가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2015년형 G30 DR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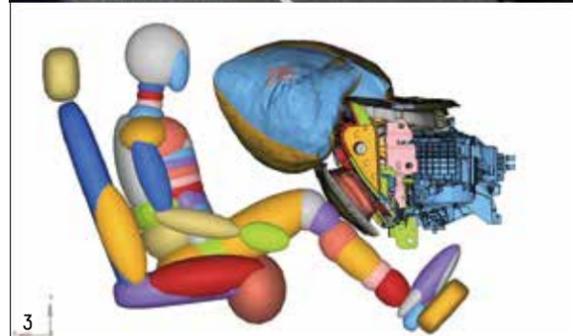


# The Value of Safety

포커스, 퓨전, 토러스, 익스플로러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포드 모델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선정한 'Top Safety Pick'이자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까다로운 평가를 만족시켜 안전도 최고 등급을 휩쓴 차량이다. 이를 방증하는 포드의 다양한 세이프티 테크놀로지를 정리했다.

Editor 강미라

1 업계 최초로 개발한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 2 안전한 주차를 돕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3 올-뉴 머스탱에 탑재된 액티브 글로벌브박스 니 에어백



2015 올-뉴 머스탱에 새로운 안전 기술을 탑재해 화제다. '액티브 글로벌브박스



니 에어백(Active Glovebox Knee Airbag)'이라는 무릎 에어백 시스템이 바로 그것. 차량에 충격이 가해져 충돌 센서 시스템이 작동하면, 글로벌브박스 도어 패널에 장착한 인젝션 몰드 플라스틱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고, 승객의 무릎까지 글로벌브박스 패널이 확장되면서 무릎을 보호해준다. 기존 컨버터블 에어백보다 65%나 더 가볍고 75% 더 작음에도 정확하게 승객의 무릎을 보호해주는 것이 특징. 자동차 안전 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될 올-뉴 머스탱의 에어백 시스템처럼, 포드자동차는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고 사고 자체를 미리 방지하는 안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과 '브레이크 서포트 시스템(Brake Support System)'이 탑재된 '충돌 경고(Collision Warning)' 기능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약 180m 앞까지 차량의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준다. 충돌 경고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앞에서 오는 차를 발견해 '헤드업' 경고 사인을 자동차 앞 유리 밑단에 표시한다. 운전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 브레이크 어시스트와도 연계되어 있다. 적용 차종은 익스플로러, 퓨전, 토러스다.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Active Park Assist)'는 안전한 주차를 도와주는 기술. 차량의 측면, 앞면, 뒤 범퍼에 부착한 초음파 센서로 평행 주차를 도와준다. 알맞은 주차 공간이 발견되면 센서를 통해 알람이 울리고, 스크린의 인스트럭션이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준다. 좁은 길에서는 주차 시 필요한 회전 방향을 감지해 주차를 거부하는 이 똑똑한 시스템은 이스케이프, 익스플로러, 포커스, 퓨전, 토러스에서 만날 수 있다.

토러스에 장착한 '세이프티 캐노피(Safety Canopy®)'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충돌하는 순간 수많은 센서로 이를 감지한 뒤 운전자의 앉은 위치, 시트 각도, 체구 등에 따라 여섯 개의 기본 에어백이 터지는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탑승자를 보호한다.

2013년 포드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도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 기존 안전벨트보다 몸을 덮는 면적이 다섯 배나 넓어 사고 시 충격을 분산하며 가슴 부분의 압력을 줄이고, 머리와 목 손상을 예방한다. 뒷좌석에 즐겨 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용 안전 좌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익스플로러에 탑재되어 있다. 익스플로러에서 만날 수 있는 트레일러 진동 제어장치(Trailer Sway Control®) 역시 어드밴스 트랙(AdvanceTrac®) 전자 제어 주행 안정장치와 함께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복 억제 주행 안정장치(Roll Stability Control®) 기능을 적용한 안전 기술. 차량과 트레일러를 컨트롤하기 위해 정밀한 비대칭 브레이크와 엔진 토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새 차를 구입한 뒤 실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게 맞게 길들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바른 운전 습관은 물론 자동차의 엔진, 서스펜션 등 주요 구성요소가 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초기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Editor 이희진

## 새 자동차 길들이기

### 무리한 운전은 금물

새 차가 제 성능을 유지하려면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급가속을 하게 되면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엔진 부하 증가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엔진의 주요 부품은 서로 맞닿은 금속 부품이 조립한 상태 그대로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은 후, 연마 과정을 거치면 더욱 부드럽게 움직인다. 누적 주행거리 2000~3000km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는데, 이 정도 주행거리가 누적되면 각종 금속 부품이 마찰하며 생긴 금속 노폐물이 오일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과속은 엔진 회전수를 과도하게 올려 심한 기계적 마모를 일으키고 결국 엔진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이유로 새 차는 엔진 회전수 4000rpm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새 차를 자주 급제동하면 헨가장치나 하체 부품 등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고장이나 소음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변속 타이밍도 중요한데, 수동변속 차량의 경우 2000~3000rpm을 유지하며 변속해야 엔진과 변속기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가속 시에는 충분히 달려 힘이 붙었을 때 상위 기어로 바꾸고, 반대로 감속 시에는 기어를 빨리 내리는 것이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자동변속 차량에서는 변속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거나 급하게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새 차의 경우 과적이나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새 차가 어느 정도 길들여질 때까지는 가능한 한 승차 인원을 줄이고, 비포장도로도 피하는 것이 좋다.

### 서스펜션 관리

엔진이 심장이라면 서스펜션은 신체의 관절에 해당한다. 서스펜션은 엔진보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최소 1톤이 넘는 차체 무게를 떠받들고, 노면에 부딪혀 탄력을 받는 타이어의 움직임을 다잡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엔진과 마찬가지로 각종 금속 부품이 맞물려 바쁘게 작동하기에 초기 관리의 필수다. 서스펜션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이상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보통 2000km까지는 급가속과 급제동, 과격한 핸들링을 삼가야 한다. 가속과 감속,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차체 무게가 바퀴에 고르게 전달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급가속할 때는 차체 뒤쪽에, 급제동할 때는 차체 앞쪽에, 운전대를 과격하게 잡아채면 코너 바깥쪽 차체에 하중이 과도하게 실리므로 바른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또 차를 길들일 때는 거친 노면은 되도록 피한다.

### 심플한 것이 최선

새 차를 사면 보조 안전장치나 액세서리를 달지 않고 가능한 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새 차의 타이어는 적어도 100km 정도 주행할 때까지 시속 80km 이하로 달리며 저항력을 갖도록 길들인다. 또 새 차의 문은 차창을 완전히 올리거나 내린 상태에서 여닫아야 차량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 문을 너무 세게 닫는 것도 소음의 원인이 된다. 새 차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빨리 없애려면 출발하기 전 차창을 열어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다. 차를 아낀다고 내부에 부착된 비닐을 늦게 떼어내기도 하는데, 새 차의 내부에 씌운 비닐 커버는 가급적 바로 벗겨내는 것이 좋다. 비닐 커버를 씌워놓은 채 운전하면 정전기가 생기거나 환기가 더더지기 때문. 그리고 차량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빠지지 않아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자동차 조작법

당연한 말이지만, 운전자가 새 차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의 조작법이 낯설면 주의를 산만해지고,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시간을 내서라도 와이퍼, 헤드램프, 오디오, 공조장치 등 기본 장치 조작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일정 기간 주행하고 조작법을 익힌 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 빨리 구입한 회사에 연락해 해결해야 한다.



# Ford's Warranty Guide

포드코리아는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신뢰성 있는 정비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마스터 테크니션의 뛰어난 기술력과 업계에서 혜택이 가장 큰 워런티 서비스까지, 포드와 함께라면 자동차 생활이 한층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Editor 강미라



## FORD BEST WARRANTY

수입차뿐 아니라 국내차에서도 하지 못한 최고의 무상 보증 서비스 '포드 베스트 워런티(Ford Best Warranty)'. 무상 보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리 기간을 5년/10만km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2012년형 이후 전 모델). 한시적으로 차량과 일반 부품 보증 수리 기간을 5년/10만km로 적용한 곳은 있었지만,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은 포드가 처음이다. 파워트레인(엔진, 미션)뿐 아니라 각종 트립, 전구 등 일반 부품도 무상 보증 가능하다.

## EXTENDED SERVICE PLAN

포드자동차의 정비 플랜 'ESP(Extended Service Plan)'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정기 점검, 일상적 검사, 주요 정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포드 베스트 워런티'와 함께 차량 구입 시 3년/6만km 이내까지 제공한다. 소정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서비스 기간을 5년/10만km로 연장하고 제공 서비스를 기본형에서 고급형으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예산과 운전 조건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비용은 미리 지불하므로 나중에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걱정할 필요 없다. ESP는 포드 모터 컴퍼니가 100% 후원하는 유일한 연장형 서비스이며, 본사에서 교육과 인증을 받은 마스터 테크니션이 순정 부품만을 사용해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준다.

또 차량 소유권에 관계없이 명확하고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비 요금이 상승해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며, 공제액도 없다.

-EMP(Essential Maintenance Program) : 기본 프로그램인 EMP 선택 시 일부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가 포함된다. 엔진오일과 필터, 타이어 위치 교환과 차량 종합 검사 등이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정기 차량 검사가 포함된 든든한 서비스다.

-PMP(Premier Maintenance Program) : 정기 점검, 일상적 검사, 선제적 관리, 정상 마모 부품의 교체 등을 포함한 EMP의 고급형 버전. 스파크 플러그, 충격 흡수 장치, 클러치 디스크, 엔진벨트/호스, 브레이크 패드/라이닝, 와이퍼 블레이드 등에 한해 정상 마모 부품도 교체 가능하다. 그 밖에 종합검사, 오일/생각수/워셔액을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과 구성품 점검, 엔진오일과 필터 교환 등도 적용된다.

## SEASONAL CAMPAIGN

포드코리아는 매 계절 무상 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포드 서비스센터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겨울에는 2014년 12월 27일까지 진행했으며, 겨울철 꼭 필요한 부동액/브레이크액, 파워오일 교환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포드자동차 오너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차량 점검을 받아볼 수 있는 것. 이러한 캠페인 내용에는 'The Works 차량 관리 패키지'를

포함하는데, 이는 포드 차량만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차량 점검 서비스를 말한다. 오일과 필터 교체, 타이어 위치 교환, 오일류 보충, 에어컨 점검을 비롯한 27개 항목의 종합검사가 포함된다.

## EMERGENCY SERVICE

차량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주행거리 6만km 이내의 차량이라면 갑자기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365일 언제라도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리 50km 한도 내에서 가장 가까운 포드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견인해주는 견인 서비스, 펌프가 난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타이어 교체 서비스, 방전 차량 시동 서비스, 비상 급유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콜센터(080-300-3673)로 연락해 자신의 위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록번호 등을 말해주면 신속하게 조치 가능하다.

## SERVICE CENTER

포드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포드 차량에 맞게 특별히 설계하고 제작한 순정 모터크래프트(Motorcraft®) 부품을 사용해 마스터 테크니션의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포드자동차는 100년 이상의 자동차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교체용 부품 역시 신차처럼 높은 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다. 현재 공식 서비스센터는 서울 7곳을 비롯해 전국에 27곳이 있다. 2015년에도 꾸준히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월등한 기술력으로 제작되는 포드의 디젤엔진



디젤엔진을 탑재한 포드의 간판 모델, 몬데오

# Exclusive Diesel Power

디젤엔진의 역사에서 포드가 빠진 적은 없다. 우리나라에 아직은 덜 알려졌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포드 디젤엔진을 얹은 몬데오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Writer 김준선(자동차 칼럼니스트)

## □ | 국과 유럽 지역에서 동시에 발전해온 포드자동차

자동차 역사가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탄생부터 지금까지,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의 발자취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두 지역의 차에 대한 가치관은 많이 다르다. 유럽은 부유층의 장난감 성격이 짙고, 미국은 만민의 이동수단으로 접근했다. 지역과 환경은 연료에 대한 개념도 바꿔놓았다. 원유 확보가 수월했고, 장거리 주행이 많은 미국은 소음과 진동이 적고 제작이 덜 까다로운 휘발유엔진을 고집했다. 복잡한 도로 환경을

갖췄으며, 귀하게 확보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사용해야 했던 유럽은 좀 더 다양한 특성의 연료에 관심을 보였다. 2000년대 이전까지, 미국보다 유럽차의 연료 선택 폭이 훨씬 넓었던 이유다. 유럽의 자동차회사들은 그렇게 디젤엔진 기술력을 쌓아갔다. 그러나 여기,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힘든 브랜드가 있다. 바로 포드다. 헨리 포드가 창립한 이 회사의 시초는 분명 미국이다. 그러나 포드는 초창기부터 유럽을 넘봤다. 영국에 법인을 세운 건 이미 한 세기를 훌쩍 넘겼고, 독일 포드도 창립 80년이 넘는 전통 있는 회사다. 웬만한 자동차회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유럽에

터전을 두고 있었다는 뜻이다. 역사가 이 정도라면, 포드를 미국 자동차 문화의 한 축으로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자동차의 역사가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듯, 자동차의 역사 그 자체를 만들어온 포드 또한 미국과 유럽 두 축으로 나뉘어 발전해왔다. 한마디로 유럽 포드는 유럽 회사라는 소리다. 미국의 여타 브랜드보다 월등히 앞서서 디젤엔진 기술력만 봐도 그렇다. 태초부터 유럽에서 살아남아야 한 배경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드의 영국 공장에서는 30초당 하나씩 포드 엠블럼이 달린 디젤엔진이 만들어지고 있다.



1 포드 포커스 모델 2,3 국내 판매되는 퓨전의 유럽형 모델, 몬데오가 2015년 초 한국에 들어온다. 4 포드자동차의 세 번째 베스트셀링 모델, 쿡가

**세계 최고 수준의 포드 디젤엔진**

전기차가 시판되고 수소연료가 주목받는 탈석유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석유를 태워 돌아가는 엔진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고유가와 친환경, 고성능에 대한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디젤엔진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승용 디젤은 커먼레일 기술을 개발해 디젤 특유의 커다란 소음과 진동을 줄인 1990년대부터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런 디젤엔진의 부흥은 언뜻 독일을 대표하는 네 개의 회사와 프랑스의 몇몇 브랜드가 주도한 것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디젤엔진의 시초부터, 그리고 승용 디젤의 역사 모두에서 포드가 참여하지 않은 시기는 없었다. 현재 포드의 디젤엔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8년부터는 프랑스 PSA와 협력해 승용 디젤 유닛 라인업을 강화해왔다. 이로써 탄생한 디젤 유닛은 한때

산하에 있던 재규어와 랜드로버 등에도 탑재해 힘과 연비, 정숙성과 내구성 등 그 뛰어난 완성도를 입증했다. 이들 브랜드의 일부 모델에는 지금도 포드 디젤엔진이 들어간다.

**포드 디젤엔진이 갖춘 직관성과 합리적인 가격**

모두가 자사의 엔진을 최고라 여기지만, 포드의 디젤엔진은 특별한 장점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그들이 드라이빙 다이내믹스와 부르는 직관성이다. 이는 가속페달에 대한 엔진 반응과 출력 곡선으로 나타난다. 즉 연비와 뒷심이라는 디젤엔진의 장점에, 반응성이라는 휘발유엔진의 이점을 끌어들이는 것. 한마디로 디젤엔진의 연비와 끈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휘발유의 즉각적인 움직임과 매끄러운 출력 상승 감각을 함께 머금는다. 이런 '기술적 여유'는 오랜 기간

디젤엔진을 설계해온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두 번째 강점은 포드의 저가 정책이다. 태초부터 대중을 위한 차를 표방해온 포드는 가격 거품 줄이는 노하우에서도 으뜸이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그 제품을 이루는 부품과 소재에서도 나온다. 포드의 TDCi 엔진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능을 갖추면서도 경쟁사 유닛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성 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전 세계적 현지화 조율도 포드의 장이다. 나라와 지역마다 엔진에 대한 요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며, 때로는 연료의 성분마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창립 초기부터 미국과 유럽이라는 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전 세계적인 현지화를 추구해온 포드는 그만큼 각 지역과 환경에 대한 막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디젤엔진 분야에서도 모든 지역에 더 나은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많은 배경을 바탕으로 포드의 디젤 유닛은 2012년 올해의 엔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포드의 유일한 디젤 모델은 포커스다. 포커스는 유럽 취향으로 개발해 독일 자를루이 공장에서 만드는 독일산 모델. 최신 기술의 2.0L TDCi 디젤엔진과 단단한 하체 그리고 짙돌 같은 새시와 널찍한 공간이 일품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동급 경쟁 모델보다 뛰어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한국 시장에서 만나는 포드 디젤 모델 라인업**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의 디젤 열풍과 포드의 디젤엔진에 대한 강한 자신감 그리고 포커스로 얻은 시장의 반응성을 토대로 포드는 한국 시장에 디젤 모델 라인업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판매 중인 포커스 2.0TDCi에 더해, 2015년 초 포드의 간판 모델인 몬데오를 더한다. 몬데오는 넉넉한 크기와 실용적인 실내 공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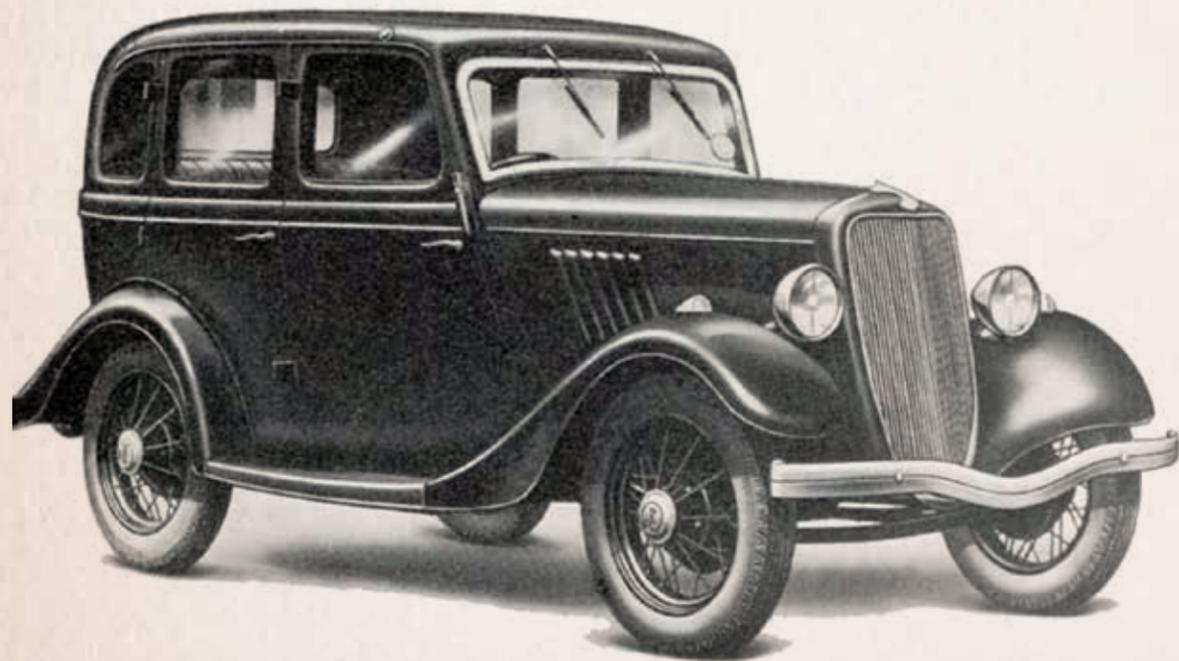
인기를 끈 패밀리 세단이다. 2015년에 한국에 들어올 2015년형 몬데오는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퓨전의 유럽형 모델이다. 포드가 자랑하는 두 종류(1.5L와 2.0L)의 TDCi 디젤엔진을 넣었고, 하체와 조향 성능에 유럽 취향을 가미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을 장악한 독일 네 개 브랜드에 강력 대항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젤 라인업 강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 오토카 올해의 SUV 1위에 선정된 쿡가도 들어온다. 쿡가는 이스케이프의 유럽형 모델이다. 이스케이프에 없는 2.0L TDCi 엔진과 유럽형 하체 세팅이 쿡가만의 매력 포인트다. 전후 구동력을 100대 0에서 0대 100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AWD가 6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들어간다. 험로와 온로드 모두에서 최고의 운전 감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 시속 30km 이하에서 사고를 회피하거나 줄여주는 '액티브 시티 스톱'과 사각지대

감지 장치인 '블라인드스팟 인포메이션' 등 안전 장비도 훌륭하다. 불황임에도 여전히 활기를 띠는 국내 수입 디젤 시장에서 포드가 추가할 새로운 디젤 라인업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포드는 PSA와 체결한 파트너십을 2016년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디젤 기술을 독자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뜻이다. 결정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포드의 오랜 디젤 역사와 수많은 기술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영국 던턴 기술개발센터에 근무 중인 1만6000명이 넘는 엔지니어 중 절반 이상이 디젤 전담 요원이며,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디젤엔진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훌륭하고 충분한 인력과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전 세계적으로 축적한 데이터. 포드 디젤엔진의 역사는 이렇게 써왔으며, 앞으로도 탄탄하게 쓰일 것이다.

# Superstar History

1998년 탄생해 지금까지 1200만 대 넘게 팔린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 포커스. 포드의 슈퍼스타는 깊이 있는 전통과 역사, 그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혁신적으로 진화해왔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Writer 이병진(자동차 칼럼니스트)



**몇** 달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았다. 서민 친화적이고 인간적인 교황은 실용적이면서 품질 좋은 차를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해 화제가 됐다. 청빈낙도의 삶을 몸소 보여주는 그의 포프모빌(교황의 차)은 다른 아닌 포커스다.

교황의 발이 되어주는 포커스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세계적인 슈퍼스타다. 1998년 세상에 나와 지금까지 1200만 대 넘게 팔렸고, 지금도 누군가는 달뜬 마음으로 계약서에 사인 중이다. 이 혁신적이고 야심 찬 모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세월을 가르며 진화를 거듭해 세대를 달라해온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다. 1998년 1세대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모델인 3세대까지 성장한 것이다.

포커스의 역사를 논하려면, 1932년 영국에서 만든 포드 Y를 빼놓을 수 없다. Y는 포드가 맨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을 겨냥해 만든 전략 모델이다. 야심 차게 개발해 등장한 이 모델은 선풍적 인기를 바탕으로 1937년까지 17만 대 넘게 팔렸다. Y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포드는 1938년 좀 더 풍만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풍부히 갖춘 7Y를 만들었고 이듬해에는 앵글리아를, 1986년에는 에스코트를 개발했다. 그리고 1998년 포드의 슈퍼스타인 1세대 포커스를 만들었다. 1990년대 초까지 피에스타와 에스코트라는 모델로 유럽의 소형차 시장을 주도한 포드는 1998년, 에스코트의 후속작이자 당대의 불세출이 된 포커스를 내놓았다. 유럽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고, 2년 후인 2000년에 그들의 본진인 미국 시장에도 들어왔다.

포드는 에스코트를 치밀하고 꼼꼼히 분석해 1세대 포커스를 개발했다. 눈 꼬리를 치켜올려 좀 더 날카로운 헤드램프를 달았고, 다소 투박한 디자인을 매끈하게 다듬었다. 절치부심해 만든 1세대 포커스는 당시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올해의 유럽 차와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소비자들과 전문가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포커스의 진짜 아버지는 Y일까, 아니면 에스코트일까? 정확히 따지면 Y는 증조나 고조할아버지쯤 되고 아버지는 에스코트다. 에스코트는 1967년 유럽 포드가 진출한 후 작심하고 1968년에 내놓은 모델이다. 무려 30년 동안 영국에서만 400만 대를 훌쩍 넘겨 불티나게 팔렸다. 당시로서는 혁신적 구조였던 뒷바퀴 굴림 구동 방식의 소형 가족 차로 패키징한 문 두 개짜리 세단으로 출시했다. 추후 문



1933 Ford Y



1980 Ford Escort



1994 Ford Escort Hatchback



1997-1999 Ford Escort wagon



2005-2007 Ford Focus



2004 Ford Focus



2010 3세대 Ford Focus 등장  
(북미국제모터쇼)



2012 Ford Focus



2014 Ford Focus Diesel

두 개를 추가로 달아 제대로 된 세단을 내놓았다. 1975년에는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바꿔 2세대를, 1980년에는 3세대를 연이어 선보였다. 더불어 해치백 모델까지 확장해 보디 타입의 영역을 넓혔다. 에스코트의 승승장구에 탄력을 받은 포드는 유럽(1998년)과 미국(1999년)에 기지를 두고 약간씩 차이를 둔 포커스를 내놓았다. 코드네임 CW170으로 개발한 유럽형 1세대 포커스는 당시 유럽에서 판매하던 자사의 모든 모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장점만 모아 만들었다. 1.4L부터 2.0L까지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췄고, 5단과 6단 수동, 4단 자동 기어 박스를 얹어 궁합을 맞췄다. 1999년 11월 미국 시장에 공개한 1세대 포커스는 유럽형 포커스를 기반으로 미국인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과 패키징으로 약간 차별화했다. 3도어 세단과 해치백, 왜건을 먼저 출시했으며 2년 후 5도어 해치백을 내놓았다.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으며 인기 가도를 달리던 1세대 포커스는 2004년에 2세대로 진화한다. 1세대보다 크기를 키우고 프런트 그릴을 비롯한 전체적 디자인을 세련되게 다듬었다. 프런트와 리어 범퍼, 리어 램프는 물론 계기반 디자인도 바꿨다. 보닛용 철판을 더 단단한 재질로 바꿔 충돌 안전성까지 높였다. 볼보 S40에도 쓰인 C1 플랫폼을 공유하고(1세대 포커스를 출시한 포드는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인 볼보를 인수했다. 그리고 볼보 모델과 플랫폼뿐 아니라 다수의 부품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2세대 포커스 플랫폼이 S40과 같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1.4L부터 2.5L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휘발유 엔진은 물론 1.6L와 2.0L 듀라토크 디젤엔진을 얹어 효율성까지 챙겼다. 2005년에는 볼보 S50 T5에 얹은 220마력짜리 터보엔진을 올린 ST 버전을 내놓을 정도로 모델 확장 의지가 강했고,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다.

2007 북미 모터쇼를 통해 데뷔한 2세대 미국형은 유럽형과 달리 1세대 플랫폼인 CW170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형 플랫폼으로 완벽히 새로운 모델로 진화한 유럽형과 달리 미국형은 1세대 포커스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었다. 당시 포드의 경영진은 폴 모델 체인지로 값을 올리기보다 기존의 것을 개선해 내놓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세대는 새시 강성을 키우고(1세대보다 약 10% 단단해졌다) 서스펜션도 손봤다. 크기도 월등히 커져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각각 4350·1840·1485mm나 됐다. 실내 공간의 크기를 가능하는 휠베이스는 무려 2640mm로 라이벌로 거론되던 골프를 앞섰다. 서스펜션을 스트럿(앞), 멀티링크(뒤)로 바꿔 하체 감각과 핸들링도 더 날카롭고 다부지게 매만졌다. 겉모습과 주행 감각뿐 아니라 실내도 완전히 달라졌다. 항공기 조종석 같은 구성과 인체공학적 재배치로

다루기도 쉬웠다. 3세대 포드의 등장은 2010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였다. '올-뉴'를 이름 앞에 붙인 새 모델은 그야말로 또 한 번 진화한 완벽한 새 모델이었다. 2010년 원포드 전략 아래 유럽과 미국의 버전 차이를 없앴고, 똑같은 플랫폼에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상품성을 풍성하게 담은 모델이었다. 세상에 없던 모델을 새로 개발해 만들 듯 열정과 기술, 노하우를 담아냈다. 3세대 포커스부터 적용한 원포드 전략의 장점은 다양하다. 플랫폼은 물론 부품까지 상당수 공유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포드의 원포드 전략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까지 생산 기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뉴 포커스는 글로벌 C 플랫폼의 핵심 모델로

지목됐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과 연비를 높이는 다운사이징 터보엔진도 개발했다. 포드의 에코부스트 엔진이 그것이다. 2.0L 휘발유 엔진은 162마력의 최고 출력과 20.2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며 화끈하고 경쾌하게 내달린다. 안전과 운전 재미를 모두 잡기 위해 토크 벡터링 시스템과 듀얼 클러치 6단 파워 시프트 기어 박스를 얹었다. 놀랄 만큼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품은 2.0 듀라토크 TDCi 디젤 모델도 공개했다. 최고 출력 163마력과 최대 토크 34.7kg·m로 경쾌하고 시원하게 달리면서도 연비는 무려 리터당 17.0km나 된다. 3세대 포커스 디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독일 자를루이 공장에서 제작한다. 사실 포커스는 태생부터 유럽에서 시작됐고,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시장에 맞춰 생산했다. 디젤이 대세인 유럽 시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전한 덕에 포커스에 올라간 디젤엔진의 완성도는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미국 브랜드면서 유럽의 친환경과 고효율 철학과 기술력, 그간의 노하우로 완성한 것이다. 실내 또한 미래지향적 트렌드가 듬뿍 들어간 키네틱 디자인을 취했다. 일명 에지 스타일로 불리는 디자인 언어는 차체의 양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팽팽히 당겨진 램을 떠올리게 하여 긴장된 면과 면이 만나 날카로운 에지를 만들어내 조형미를 강조한다. 20년의 세월 동안 포커스는 3세대로 진화했다. 세대를 바꾸면서 완벽히 새롭고 신선한 모델을 선보이는 포드는 분명 남다르다. 자동차를 다루고 생각하는 브랜드의 철학과 신중한 태도, 여전히 진화 중인 첨단 기술과 노하우, 만드는 이들의 차에 대한 이해와 열정 등이 그것이다. 포커스가 글로벌 슈퍼스타인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



# Surprise Show

신형 머스탱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접하는 소식 하나하나가 모두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정보를 알고 있다 해도, 직접 타보면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올 뉴 머스탱이 준비한 깜짝쇼에 그 누가 넘어가지 않을까.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grapher 전세훈, 김영성

**자** 동차의 세대수가 바뀔 때면 은근한 기대감이 생긴다. 이번에는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디자인은 멋있을까, 아쉬운 부분은 보완이 되었을까, 연비는 높을까 등. 모든 차가 이런 기대를 만족시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따라가지 못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 엉뚱하게 변하기 일쑤다. 그런 와중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로 즐거움을 안기는 자동차가 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깜짝쇼를 하듯 놀라움을 안겨주는 포드 머스탱. 2014년에 선보인 올 뉴 머스탱은 세대수로 6세대,

했수로는 50년을 채웠다. 머스탱은 등장부터 없던 장르를 새로 만드는 깜짝쇼를 벌였다. 양산차를 베이스로 대배기량 엔진을 얹은 저렴한 대중적 스포츠카를 일컫는 '포니카'라는 장르의 시초가 바로 머스탱이다. 1964년 4월 데뷔한 이후, 머스탱은 그해 말까지 70만 대가 팔리는 대기록을 세웠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보다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팔리는 차'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그 후 지금까지 900만 대 이상 팔리며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스포츠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머스탱의 역사가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포니카의 인기가 예전만 못 해졌다. 라이벌도 하나 둘 단종되었고, 2002년 이후로는 유일하게 머스탱만 포니카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위태한 자리 지키기가 계속되면서 역사 속 차로 물러나기가 싫더니, 2004년 5세대 머스탱이 등장하면서 극적인 깜짝쇼를 펼쳤다. 초대 모델을 완벽하게 재해석한 스타일과 강력한 성능을 강조하면서 머스탱 덕분에 포니카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후 경쟁사들이 포니카를 다시 내놓기 시작했다). 10년이 흐른 지금, 6세대는 5세대를 뛰어넘는 굵직한 변화로 '머스탱 깜짝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015년 국내 론칭하는 6세대 머스탱은 2종류이다. 5.0L V8엔진을 얹은 국내 최초로 론칭하는 GT모델(422마력)과 머스탱 최초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얹은 모델(314마력). 이 중 2.3L를 얹은 새로운 모델인 에코부스트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승하게 되었다. 첫눈에 들어온 새빨간 머스탱은 그 모습만으로도 깜짝쇼나 다름없다. '역시 머스탱!'이라는 감탄사밖에 흘러나오지 않는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머스탱만의 기운이 시선을 압도한다. 딱 봐도 머스탱인데, 이전 머스탱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인터스텔라>의 '쿠파'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론 우드루프'가 영화 속에서는 다른 인물이지만 관객은 같은 배우인 매튜 매커너히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 디자인 변화의 초점은 '전통의 현대화'다. 이전 5세대도 '모던 레트로'를 내세워 과거를 되살렸는데, 5세대와 6세대는 조금 다르다. 5세대는 머스탱의 원본을 최대한 살려 미국적인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6세대는 머스탱의 핵심 요소는 유지하면서 미국적 색채를 덜어내고 좀 더 글로벌한 감성으로 세련되게 다듬었다. 5세대의 다소 뭉뚱하고 선이 굵은 프런트는

날카롭고 날렵하게 바뀌었다. 상어를 닮은 듯한 프런트는 인상이 강렬하다. 헤드램프 안쪽, 대각선 세 개의 줄로 된 주간등은 상어의 아가미를 보는 듯하다. 트라이바 리어 램프와도 맥을 같이해 앞뒤 통일성을 더한다. '롱 노우즈쉴데크' 비율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 긴 보닛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게다가 폭은 38mm 넓어지고, 높이는 37mm 낮아져 바닥에 달라붙은 스포츠카의 자세가 한층 부각된다. 루프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은 더욱 경사지게 드러누워 패스트백 실루엣을 완성한다. 초기 머스탱 실루엣의 복사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재해석이다. 트라이바 리어 램프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머스탱의 정통성을 드러낸다. 깜짝쇼는 인테리어로 이어진다. 품질감은 높아지고, 마이포드 터치 시스템을 갖춰 첨단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 차가 머스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고급스러워졌다. 대시보드 오른쪽 상단에는 머스탱 로고와 함께 'Since 1964'라고 적힌 표창이 붙어 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자부심의 표현이다. 스포츠카답게 대시보드 중앙에는 오일 압력계와

부스트업 게이지를 달아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계기반 모니터에서는 실린더헤드 온도, 공기/연료 혼합비, 오일 온도, 전압 등 스포츠 드라이빙 시 챙겨야 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디테일한 배려는 드라이빙 정보에만 그치지 않는다. 실내조명의 컬러도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데, R/G/B 농도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무뚝뚝한 듯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랄까.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엔진 라인업의 변화다. 머스탱의 엔진은 3.7L V6, 5.0L V8 그리고 2.3L 4기통 에코부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포드는 익스플로러나 토러스 등에도 2.0L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했지만, 머스탱 같은 스포츠카에 4기통 엔진을 넣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다(머스탱 역사에서 처음은 아니다). 그런데 스펙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3.7L V6의 출력은 300마력, 최대 토크는 38.7kg·m이고, 2.3L 에코부스트는 314마력, 44.3kg·m다. 오히려 V6보다 힘이 좋다. 비슷한 성능을 자연흡기와 터보 두 가지로 누릴 수 있게 한 의도가 엿보인다. 게다가 2.3L 에코부스트는 V6보다 연비가 좋기에 힘은 V6를 능가하면서 더 경제적이다.

변속기는 수동 6단, 자동 6단 중 고를 수 있으며, 자동의 경우 패들 시프트를 새로 적용했다. 엔진에 이은 큰 변화는 후륜 서스펜션이다. 그동안 머스탱은 리지 액슬을 고집해왔는데, 신형은 과감하게 독립식으로 바꾸었다. 엔진과 서스펜션 등 '뺏속까지 바꾼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중요 부분에 큰 변화를 주었다. 운전석에 앉으니 시트가 단단하게 몸을 감싼다. 차체가 커서 공간이 여유롭다. 흔히 스포츠카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머스탱은 편하면서 스포츠카에 앉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 센터페시아 아래 시동 버튼을 누르면 콕뚱거리며 머스탱에 생기가 차오른다. 2.3L 에코부스트 엔진은 트윈 스크롤 터보를 달아 최대 토크가 2500~4500rpm에서 터져나온다.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충만하게 차오른 토크가 차를 밀어내는 기운이 느껴진다. 페달을 깊숙이 밟으면 맹렬하게 속도를 올린다. 경쾌한 배기음을 내뿜으며 세차게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진다. 어떤 엔진인지 모르고 타면, 3L를 넘어서는 V6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차다.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과 다른, 적은 배기량을 최대한 활용해 끝까지 뽑아내는 감각은 이전 머스탱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역동성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 시프트 레버를 D에서 S로 내리면, 파워업 드링크라도 마신 듯 체력이 보강된다. 높은 회전대를 유지하면서 더 신속하고 강하게 튀어나간다. 패들 시프트까지 곁들이면 파워 머신으로 돌변한다. 하체는 탄탄하다. 노멀 모드에서도 도로 상태가 읽힐 정도로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다. 스티어링 반응은 신속하고 정교하다. 후륜 서스펜션이 독립식으로 바뀌고, 앞쪽도 개선해 하체는 더욱 예민하고 정확하게 반응한다. 스티어링 휠 감도는 컴포트/스포츠/노멀 세 가지 중 고를 수 있다. 드라이빙 모드도 노멀/스포츠+/트랙/스노우로 나누어 있다. 스포트+나 트랙 모드에서는 ESC의 개입이 늦춰지기에 그만큼 더 차의 본질을 끌어내고, 운전자의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다. 스티어링과 드라이빙 모드의 조합으로 12개의 세분화된 맞춤 상태가 갖춰진다. 여기에 D와 S까지 구분하면(단, S에서는 노멀 모드가 없다)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예전에는 멋으로 타는 차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전 운전하는 재미가 쏠쏠한 차다. 지금까지 머스탱은 광활한 미국 대륙의 직선 도로에 어울리는 차 이미지였다. 하지만 신형 머스탱은 유럽산 스포츠카 못지않은 역동적 차로 거듭났다. 교불교불한

와인딩이 연속인 도로에 잘 들어맞는 차가 되었다. 요즘은 스포츠카도 기본 상태에서는 일상성을 최대한 살려 부드러움을 강조한다. 머스탱은 그런 트렌드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일상에서도 편하게 탈 수는 있지만, 역동적 감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기본 상태에서도 '스포츠킨을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긴장하게 만드는 스포츠카의 원초적 본능이 살아 있다. 머스탱은 글로벌 시장에 팔렸지만, 미국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원포드(One Ford)' 전략에 따라 글로벌 스타일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없던 우핸들 모델도 나온다니,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스타일과 엔진, 서스펜션 등 굵직한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깜짝쇼는 '본질의 방향 변화'다. 가장 미국적인 모습이 아닌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세계 시장을 사로잡자는 것이다. 머스탱의 이런 변화에는 분명 논란이 따를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반세기를 지나는 머스탱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하지만 스타일이 바뀌고 성능에 변화가 생겨도, 머스탱은 누가 봐도 머스탱이다. 이 하나만으로 6세대의 깜짝쇼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 Mustang Spirit

지난 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머스탱이 속도, 정교함, 효율성 등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살아 있는 포니카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픈 유혹을 차마 뿌리칠 수 없을 것. 그 이유는 다섯 가지만 꼽아도 충분하다.

Editor 김미라

## 1 최첨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머스탱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마무리한 운전석은 비행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아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와 제어장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계기반과 디지털 피드백의 균형을 맞췄다. 기어박스는 최적의 위치에 배치했으며,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의 손에 맞게 최적화되었다. 스위치와 손잡이들은 인체공학적 기술을 적용해 촉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셀렉티블 드라이브 모드(Selectable Drive Modes)를 탑재해 커브가 이어지는 도로, 비포장길, 시내 등 도로 상황에 맞게 토글 스위치로 스티어링 강도, 엔진 반응, 변속기, 차체 자세 제어 장치(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등을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마이키(MyKey®), 트랙 앱스(Track Apps) 등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특히 음성 명령 시스템 싱크(SYNC®)를 탑재한 마이포드 터치와 음성 인식 컨트롤을 추가한 센터 터치스크린으로 최첨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만끽할 수 있다.

## 2 5.0L V8 엔진 & 2.3L 에코부스트 엔진

국내 최초로 5.0L V8 엔진을 얹은 GT(422마력)가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6세대 머스탱부터 직분사 터보 2.3L 에코부스트 엔진(314마력)을 과감하게 탑재했다. 2.3L 에코부스트 모델은 머스탱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에 진정한 힘과 효율성까지 더해줄 것이다. 고성능 직분사 시스템은 정확하게 연료 공급을 제어하고, 새로운 트윈-스크롤 터보 차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토크를 선사한다.

## 4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BLIS®

측방 접근 차량 경고 시스템(CTA, Cross-Traffic Alert)이 포함된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BLIS®, Blind Spot Information System)은 차량 양쪽에 장착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에게 측면에서 다가오는 차를 알려준다. 주차를 위해 후진할 때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물체를 경고해준다. 새로운 무릎 에어백 시스템 '액티브 글로브박스 니 에어백(Active Glovebox Knee Airbag)'을 비롯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 등 안전 사양도 충실히 갖췄다.

## 3 재해석한 머스탱 디자인 DNA

초기 머스탱의 매력적인 디자인 DNA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짧은 트렁크와 긴 보닛 스타일, 3분할 램프와 특유의 그릴 디자인, '샤크 노즈'라 불리는 프런트 형태 등 전통을 최대한 유지하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외관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사이즈다. 전고는 기존 1417mm에서 1380mm(쿠페)로 낮아졌고, 전폭은 1877mm에서 1915mm로 확장했다. 이로써 트랙 스탠스는 더욱 넓어졌다. 더욱 가파르게 경사진 전면 글라스, 리어 글라스는 매끈한 라인을 더 돋보이게 한다.

## 5 새롭게 설계한 서스펜션 시스템

머스탱이 더욱 빨라졌다. 전륜과 후륜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덕분이다. 전륜의 새로운 '페리미터 서브프레임(Perimeter Subframe)'은 차체의 무게를 줄이면서 프레임의 강성을 높였고, 바퀴 제어력을 높여 핸들링이 용이하다. 이와 함께 이중 볼 조인트 '맥퍼슨 스트럿(MacPherson Strut)' 시스템이 더욱 강력한 제동을 가능케 한다. 후륜의 '인테그럴 링크 독립식 리어 서스펜션(Integral-Link Independent Rear Suspension)'은 높은 주행 성능을 위해 서스펜션의 배열, 스프링, 댐퍼, 부싱 등을 모두 새롭게 교체했다. 더 낮아진 차체 디자인도 에어로다이내믹 향상에 한몫했다. 여기에 토크 벡터링 시스템 적용까지. 새로운 머스탱의 이 같은 진화된 설계는 어떤 도로에서도 완벽한 승차감, 짜릿한 속도감,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 Two Faces of Explorer



도시와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익스플로러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주목할 것.  
익스플로러의 위풍당당하고 멋진 자태를 말이다.

Editor 이희진 Writer 임유신 Photo 미디어포드

포드 SUV 익스플로러의 대명사인 익스플로러(Explorer)는 '탐험가'라는 뜻이다. 현재 국내에 선보이는 5세대 모델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운사이징으로, 덩치 큰 SUV에는 큰 엔진이 달려야 한다는 상식을 깨고 V8을 과감히 버렸다. V6의 배기량도 4.0에서 3.5L로 줄였다. 심지어 포드는 길이 5m에 무게 2.1t이나 되는 몸집에 2.0L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했다. 감히 상식을 넘은 혁신이라 말할 수 있다.

요즘 SUV는 도심의 아스팔트를 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익스플로러 또한 그런 추세를 따르지만, 오프로더의 본성은 잃지 않았다. 인텔리전트 4WD와 결합한 지형 관리 시스템(TMS)은 도로의 한계를 허물어버린다. 다이얼을 돌려 정상, 진흙, 모래, 눈, 힐 디센트 컨트롤의 다섯 가지 기능을 도로 상황에 맞추기만 하면 지형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바뀐다. 운전자는 어떤 지형도 과감히 헤치고 나아가는 탐험가의 기질을 맘껏 발휘할 수 있다.

익스플로러는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탐구를 시도, 큰 덩치를 날렵하고 세련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려냈다. 매끈하게 경사진 프런트, 포드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한 굵직한 세 개의 바로 이루어진 그릴, 날렵하게 치켜올라간 헤드램프는 강인하고 세련된 마스크를 완성하는 요소다. 익스플로러의 실내로 들어서면 전자식 계기반과 각종 기능이 집약된 듯한 센터페시아 모니터 그리고 터치로 작동하는 센터 패널이 이어진다. 계기반 속도계 양옆에 달린 LCD 창에는 다양한 정보를 띄울 수 있다. 익스플로러는 현 시점의 IT 트렌드를 반영하듯 첨단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익스플로러의 길이와 폭은 5m, 2m에 높이도 1.8m나 된다. 성인 7인이 거뜰히 앉을 수 있는 3열은 좌석을 가득 채우고도 짐 싣는 공간이 600L에 달한다. 파워폴드 스위치 버튼만 누르면 3열이 자동으로 접히기도 하고 바닥으로 수납되기도 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과 제동 보조 기능을 갖춘 충돌 경고 장치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전방에 달리는 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준다. 운전석과 조수석 앞, 1열에서 3열 시트까지 측면 에어백이 있는 것은 물론 2열 시트에는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을 장착했다. 또 리프트 게이트가 열릴 때 높이를 조절해주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 기능, 트레일러를 끌고 달리는 데 유용한 트레일러 진동 제어장치(TSC) 등을 갖추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익스플로러의 매력을 도심이든 오프로드든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으니 드라이빙이 어찌 즐겁지 않을까.





# 대구

## 토러스와 함께 떠난 경북 대구 소소한 멋과 낭만을 찾아서

대구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토록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근대 골목, 독립운동가의 고택, 가수 김광석 길, 그리고 곳곳에 생김 트렌디한 카페와 레스토랑 등 다양한 매력으로 점철된 대구로의 여행이 포드 토러스 SHO와 함께 시작된다.

Editor 이희진 Photographer 이유미



1

**앞산의 겨울 정취를 느끼다**

대구에서 '앞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앞산이라는 이름에 웃음이 나면서도 의아했다. 뒷산은 많이 들어봤어도 앞산이라니. 앞산으로 불리는 것은 대구의 앞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 고유명사로 굳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산에는 대구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 토러스를 타고 앞산 한 바퀴를 시원하게 내달렸다. 잠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앞산의 드라이브 코스 옆에 나 있는 인도에서 산책을 했다. 곳곳에 전날 밤 내린 눈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따스한 햇살과 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 덕에 추운 줄 모르고 한참을 걸었다. 비로소 서늘이 아닌 다른 도심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다. 앞산에는 113과 571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천연림에 가까운 참나무 숲과 잣나무 단지가 울창하다. 이곳은 연중 1600만여 명이 찾는다는 천혜의 산림욕장과 산림문화휴양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시자연공원이 대구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산 큰골 중심부를 가로질러 해발 300m에서 600m에 다다르는 케이볼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대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앞산에서 내려와 대명동 '앞산 카페거리'로 향했다. 이곳은 분위기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곳으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거리니 꼭 한 번 둘러볼 것.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공원로 574-87

**문의** 053-625-0967

**Gourmet Guide 어반 페어**

앞산 카페거리 안쪽에 위치한 '어반 페어'는 넓은 정원이



2

눈에 띄는 퓨전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다. 도심에서 앞산의 자연을 느끼며 호젓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내부로 들어가면 모던하게 꾸민 인테리어가 아늑한 느낌을 준다. 커피와 디저트는 물론 각종 파스타와 피자, 샐러드 등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양송이 양파 치즈 수프, 닭 안심을 이용한 밀라노 스타일의 밀라노 커틀리 샐러드, 수제 치즈와 신선한 채소를 토핑한 리코타 치즈 피자, 낙지 한 마리와 각종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매콤한 올리브 오일 파스타가 이곳의 추천 메뉴. 음료는 겨울에는 뉴질랜드 마누카 꿀 물 한 잔으로 언 몸을 녹이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송사탕을 듬뿍 올린 핑키 블루 큐라소 에이드가 인기 있다. 엄선한 각종 와인도 즐길 수 있으며, 맥주와 칵테일 등도 준비되어 있다.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1길 16

**문의** 053-621-3784

**운치 있는 근대 골목 투어**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 아픈 한국의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곳곳이 살아온 대구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골목 투어를 하기로 했다. '동산'이라 불리는 아트막한 언덕에 오르면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눈에 들어온다. 1899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이곳은 선교사 스위트(Switzer), 블레어(Blair), 챔니스(Chameness)의 주택 세 채가 나란히 다양한 박물관의 형태로 개관해 운영 중이다. '선교박물관(스위트 주택)', '의료박물관(챔니스 주택)', '교육·역사박물관(블레어 주택)'을 개관해 100여 년의 의료·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전시하는데, 모두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유산이다. 대구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바쁜 일상에서 점심시간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 사색을 즐기고 싶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장소다.

동산에서 계산 성당으로 가는 내리막에는 90여 개의 계단이 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집결지로 향하던 학생들이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용한 길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진다. 계단 밑에 다다르면 빌딩 숲 속에서 오래된 고택 두 채가 눈에 들어온다.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알려진 시인 이상화와 국채보상운동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 서상돈이 살던 고택이다. '이상화 고택'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 팻말의 '시민이 지켜낸 상화 고택'이라는 설명글이 눈에 들어온다. 지역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화 고택을 보존하기 위해 2002년부터 대구 지역의 문화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상화고택보존운동'을 전개해 서명 운동을 하고 기금을 모아 지켜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예술혼이 살아 있는 귀중한 장소가 없어질 위기였더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시인 이상화가 독립을 2년 앞둔 1943년, 이상화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친구들과 제자들을 맞이하던 사랑방, 울적한 마음을 달래던 감나무 마당, 그가 숨진 안방 등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일제에 저항한 그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서상돈 고택'으로 들어갔다. 서상돈은 조선 고종 때의 민족운동가로,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러시아의 내정간섭을 규탄하고 민권보장 및 참정권획득 운동,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정갈하고 소박한 고택 한쪽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그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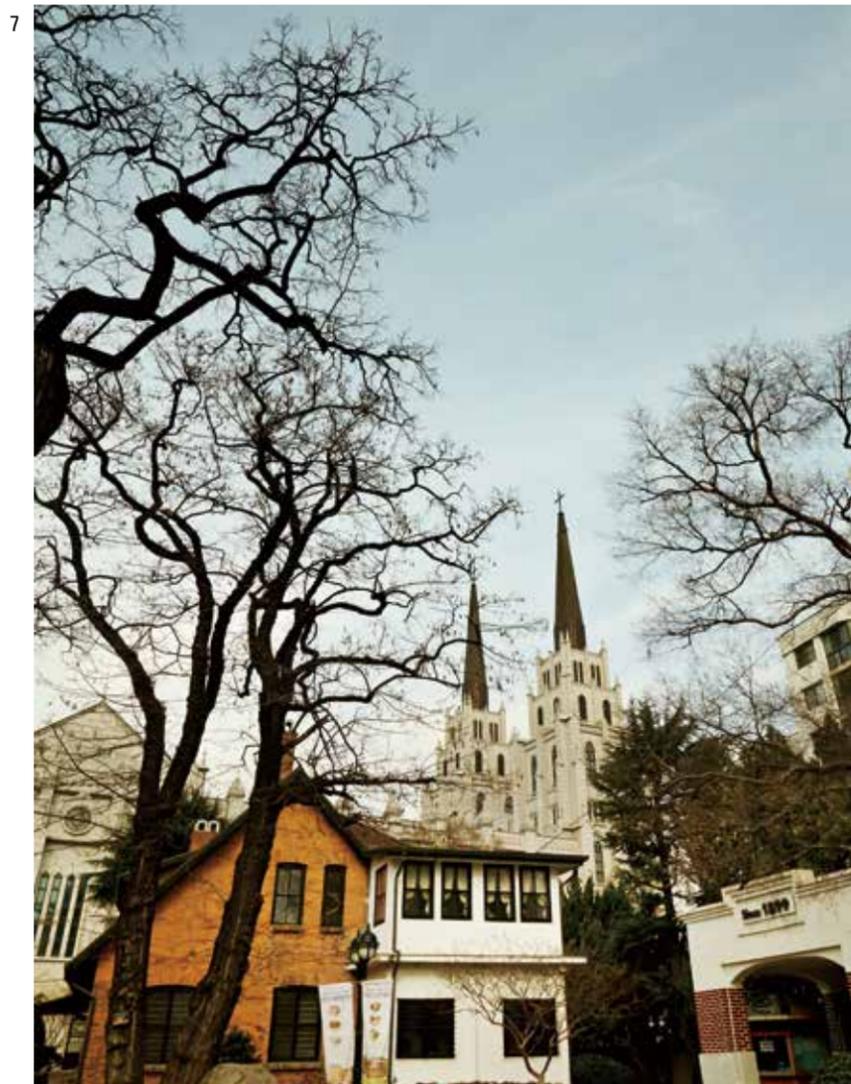
3



5



6



7



4

1, 2 고즈넉한 분위기의 '이상화 고택' 3 '앞산'의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4 '어반 페어'의 리코타 치즈 피자과 낙지 한마리 올리브 오일 파스타 5 '선교박물관' 앞의 토러스 SHO 6 넓은 정원이 인상적인 '어반 페어' 전경 7 근대 건축물인 '의료박물관'이 고풍스럽다.



1

1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문방구 2 '김광석 다시 그리기 거리'에서 벽면에 김광석을 그리고 있는 아티스트 3 싱글몰트 위스키 바, '살롱 드 1964' 4 김광석 거리의 카페 풍경 5 카페 '모가'에서 즐긴 달콤한 디저트 6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토러스 SHO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3



2



4



5



6

독립운동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고택을 돌아 나와 인근에 위치한 '약령시 골목'으로 향했다. 한의원과 약방, 제탕원, 한방 음식점 등이 빼곡히 들어선 약령시 골목에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어우러진 한약재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왔다. 이곳의 역사는 조선 효종 9년(1658년) 경성감사가 직무하는 감영(監營)의 소재지로 집결하는 약재 중 좋은 것은 중앙기관에 상납하고, 그 나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 350년의 전통을 꽃피어 이어가는 역사가 궁극해 '약령시한의약 박물관'을 구경하기로 했다. 한의학에 관한 기본 지식과 한약재 시장을 재현한 한방역사 전시실, 한방 비누를 만들거나 한방 족탕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실이 마련되어 있다. 박물관이 문 닫을 시간이라 체험은 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매년 5월 초에는 대구약령시축제를 개최한다니 그때 들러 다양한 체험을 해보아겠다.

#### 동산선교사주택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문의 053-250-7100

#### 이상화·서상돈 고택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서성로 6-1

문의 053-256-3762

#### 약령시한의약 박물관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15길 49

문의 053-253-4729

#### Gourmet Guide 살롱 드 1964

대구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대봉동. 이곳에 위치한

'살롱 드 1964'는 1964년에 지어 병원으로 쓰이던 건물을 그 의미를 재해석해 새롭게 탄생시킨 공간이다. 요식업계와 패션업계에 종사한 이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싱글 몰트위스키 바로, 서울처럼 대구에서도 싱글 몰트위스키를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오랜 준비 끝에 오픈했다. 30대 이상 직장인을 타겟으로 오픈했지만 대구의 예술업계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즐겨 찾는다. 다양한 위스키 외에도 여성들의 취향에 맞춘 보드카가 준비되어 있다. 한쪽 공간에는 매월 미술가들의 작품을 바뀐가며 전시도 하고, 위스키 시음회나 재즈 파티 등을 열기도 한다. 다양한 재미가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195

문의 053-422-5037

#### Gourmet Guide 모가

아담한 한옥과 아기자기하게 꾸민 정원이 정겨운 '모가'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폐가나 다름없었다. 마당의 중심에는 이곳의 오랜 터줏대감인 모과나무가 있는데, 모가(Moga)의 이름은 바로 이 나무에서 따온 것이라고. 오래된 집을 손수 개조하고, 대구에서 이름난 카페가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핫 플레이스로 거듭났다. 카페 곳곳에 놓인 예쁜 소품은 주인이 미국의 베흐시장과 인테리어 스타를 돌아다니며 수집했다. 전문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와 음료, 파티시에가 매일 구워내는 당근 케이크, 머랭 코코의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달콤한 핫초콜릿 한 잔 주문한 뒤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겨울 정취를 만끽하며 마시는 것도 좋다.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48-5

문의 053-426-8488

#### 김광석 거리에 가면

대구 3대 전통시장이던 대봉동 방천시장이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곳의 명소로는 가수 김광석이 타고 자란 대봉동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있다. 김광석 길은 그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해 그린 벽화와 동상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거리에는 김광석의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벽화를 감상하며 옛 추억에 잠기기 그만이다. 알록달록한 벽화와 어우러진 아기자기한 느낌의 골목 곳곳에는 예술 작가의 공방이 들어서 있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다양한 스타일 속속 생기고 있어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 밖에도 대구는 서울 '명동성당'과 평양 '관후리성당'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지은 고딕 양식의 '계산성당'을 비롯해 남산동 '카톨릭 타운(성모당)', 대구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로 유명한 '동성로', 힐링 여행지로 유명한 '팔공산' 등 볼거리가 많다. 다 둘러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에 행복한지도 모르겠다. 대구의 재발견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토러스에 올라 서울로 향했다.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방천시장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문의 070-811-3024

# Land & Sea Adventures, Alaska

알래스카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해안과 하얗게 눈 덮인 산, 완만하게 경사진 툰드라, 수많은 야생동물 등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거대한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를 탐험할 수 있는 알래스카로 포드 이스케이프와 함께 떠나보자.

Editor 강미라 Cooperation 알래스카 관광청(www.alaska-korea.com)



1 앵커리지에서 글렌 하이웨이를 타면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빙하 마타누스카를 만난다.  
2 리처드슨 하이웨이 드라이빙 코스에 백미, 항구도시 발데즈

## 빙하 속을 지나는 마법 같은 경험

빙하로 가득한 수면 위로 향한다. 청명한 물속을 물개들이 헤엄친다. 하늘은 분명 맑은데, 때 아닌 천둥소리가 들린다. 집채만 한 빙산이 바다 표면에 그대로 낙하해 수면에 부딪히는 소리다. 지구상에서 자연이 연출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1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성된 빙하와 야생 생태계는 알래스카의 상징이다.

빙하 관광은 유람선을 타고 오후 한나절 동안 가까운 해안가를 둘러보거나, 국립공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등 여행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빙하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Prince William Sound)'와 '키나이 피오르(Kenai Fjords)'가 있다.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는 낙빙의 장관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전 세계에서 해안 빙하가 가장 빠르게 밀집해 있다. 키나이 피오르는 스워드(Seward) 항구 밖 해안선 일대를 말하며 해안의 바위섬, 빙하, 고래, 바다표범, 물새 등을 만날 수 있다. '내셔널 파크 투어(National Park Tour)'를 이용해 둘러볼 수 있다. 유람선을 타고 폭스 섬(Fox Island) 앞바다에서 맛있는 산장 음식을 즐긴 뒤 빙하를 둘러보고 스워드 항구로 돌아오는 코스다. 소요 시간은 6시간, 총 거리는 약 180km다. 스펜서 빙하 고무보트 체험도 추천할 만하다.

앵커리지(Anchorage)에서 2층 관광열차를 타고 스펜서 빙하로 가는데, 환상적인 턴어게인(Turnagain)의 경치를 감상한 뒤 휘티어(Whittier)의 명물인 북미 최장 휘티어 터널을 통과하는 코스다. 열차가 스펜서 빙하에 도착하면 고무보트에 올라 빙하 관광을 시작한다. 빙하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1 알래스카의 스위스로 불리는 발데즈의 아름다운 전경 2 페어뱅크스에서 북서쪽으로 290km 거리에 있는 베틀스는 청정 자연 덕에 오로라를 보기에 좋은 곳이다. 3 매년 3월 첫 번째 토요일에 시작하는 아이디타로드 트레일 슬레드 도그 레이스 4 앵커리지에서 동북쪽으로 이어진, 290km에 달하는 길이의 글렌 하이웨이 5 가까이에서 빙하를 볼 수 있는 고무보트 빙하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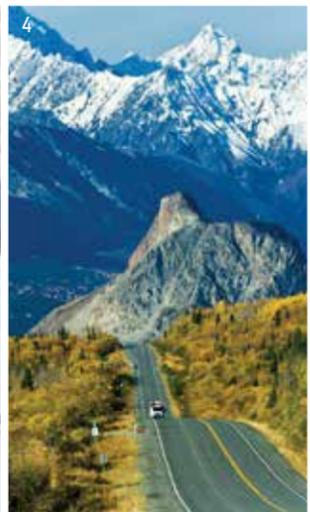
1



2



3



4



5

### 알래스카 최고의 액티비티, 개썰매

알래스카의 겨울은 11월부터 3월까지로, 특히 중남부 알래스카의 적설량은 연평균 150cm에 이른다. 하얀 눈이 쌓인 눈부신 풍광, 오색찬란한 오로라는 알래스카의 겨울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여기에 스키와 개썰매, 아이스하키, 얼음낚시 등 다채롭고 특별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그중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개썰매(Sled Dog) 경주는 겨울 스포츠의 으뜸으로 손꼽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썰매 시합이 열리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매년 3월 첫 번째 토요일에 시작하는 아이디타로드 트레일 슬레드 도그 레이스(Iditarod Trail Sled Dog Race)다. 앵커리지에서 نوم(Nome)을 잇는 1678km 코스를 달리는 대장정으로, 무려 9일간 진행한다. 이를 주관하는 와실라(Wasilla) 개썰매 본부에서는 개썰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휘티어와 스위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개썰매를 탈 수 있다. 특히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 빙하 지대에 올라간 뒤 개썰매나 스노머신을 타는 프로그램이 인기 있다.

### 페어뱅크스에서 만나는 진정한 겨울

페어뱅크스(Fairbanks)는 10월 말부터 3월까지, 산속은 4월까지 겨울이 이어진다. 이즈음 알래스카를 찾는다면 꼭 가봐야 할 지역이기도 하다. 온갖 겨울 축제가 펼쳐지며, 날씨가 청명해 맑은 하늘 위에 떠오르는 오로라를 보며 노천온천을 즐길 수도 있다. 자작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트레일을 따라 스키를 타면서 겨울 풍경을 만끽하는 것도 좋다. 곳곳에 스키장과 트레일이 있어 개썰매나 말썰매, 스노머신을 타고 거대한 빙하 장벽 사이를 누비는 짜릿함이 있다. 페어뱅크스 하이킹이나 크로스컨트리 프로그램도 추천할 만하다. 눈꽃 가득한 숲을 배경으로 하이킹을 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누빌 수 있다. 페어뱅크스의 체나 핫 스프링스(Chena Hot Springs)도 놓치지 말 것. 북극 유황 온천인 이곳은 상시 흐르는 자연 온수가

분당 약 1500L이며, 섭씨 59도의 수온을 유지한다. 유산염 등 염화물질과 중탄산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류머티즘, 풍증, 동맥경화, 고혈압, 만성 소화기 질환, 알레르기 등에 효능이 있다. 무엇보다 페어뱅크스 겨울 관광의 백미는 단연 오로라다. 오로라를 가장 보기 좋은 조건은 지상의 습기가 얼어붙은 밤 1시경. 때로는 넓은 막을 내린 것처럼, 때로는 가늘게 굽이쳐 흐르는 오로라의 변화무쌍한 모습은 형언하기 어려운 자연의 신비 그 자체다. 체나 핫 스프링스에 위치한 오로라 전망대에도 올라가보자.

### 이스케이프와 즐기는 리처드슨 하이웨이 드라이빙

리처드슨 하이웨이를 지나 발데스로 향하는 70km의 코스는 세계 10대 드라이브 코스로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포드 이스케이프와 함께 질주하다 보면 여행의 묘미가 배가된다. 알래스카를 여행하는 모험가에게 이처럼 어울리는 차가 또 있을까. 넓은 적재 공간과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을 탑재해 알래스카 낚시 여행이나 캠핑 여행을 하기에 더 제격이다. 이스케이프를 타고 드라이브 코스를 지나 알래스카 유일의 농장 지대를 거치고, 해발 850m의 탐승 고개를 넘으면 워싱턴 빙하를 볼 수 있다. 하이웨이 끝에서는 알래스카의 스위스라 불리는 항구도시 발데스를 만나는데, 연어 부화장이 볼만하다. 수백만 마리의 연어들이 좁은 통로를 따라 산란장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 tip

### Alaska Ski Spot

#### 알리예스카 스키장(Alyeska Resort)

거드우드(Girdwood)에 위치한 알리예스카 스키장은 앵커리지에서 스위드 하이웨이 남쪽으로 45분 정도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 리조트는 약 120m의 알리예스카 산 아래에 있으며, 평균 1600m의 강설량과 바다 전경을 자랑하는 세계 유일의 스키 리조트다. 헬리콥터, 스노모빌, 개썰매 등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로라도 관찰할 수 있다. 스키 시즌은 1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www.alyeskaresort.com](http://www.alyeskaresort.com)

#### 이글크레스트 스키 지역(Eaglecrest Ski Area)

주노(Juneau)국제공항에서 약 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글크레스트는 알래스카의 행정 중심지 주노 인근의 관광지다. 알래스카 동남부 지역 도시들과 빙하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스키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다. 1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스키 시즌이며, 주노에서 21km 거리에 자리한 멘델홀 빙하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헬리콥터를 타고 빙하 위에 착륙해 직접 빙하를 체험하는 코스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www.skijuneau.com](http://www.skijuneau.com)

#### 마운틴 오로라 스키랜드 Mt. Aurora Skiland

페어뱅크스 북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스키뿐 아니라 하이킹, 산딸기 따기, 개썰매, 10km의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이곳 역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여행지다. 11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가 스키 시즌이다. [www.skiland.org](http://www.skiland.org)



## 강약의 조화

화끈한 드라이빙 뒤에는 여유로운 휴식이 필요하다. 머스탱을 타고 한껏 흥분된 마음을, 바다를 바라보며 공원을 산책하며 진정시키자. 송도 신도시에 가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grapher 김명성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에 갈 때 가장 흥분되는 순간은, 착륙할 때가 가까워지면서 어둠 속 저 멀리 도심의 불빛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다. 배를 타고 가다 육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처럼,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가열차게 끓어오른다. 인천대교를 건너다 보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다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평탄하게 바다를 끼고 달리다 어느 순간 오르막이 시작되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정점에 이르러 내리막이 시작되면 착륙하는 비행기의 시점으로 눈앞에 송도 신도시가 펼쳐진다. 신도시의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은 운전자의 시야를 빨아들이고, 바다를 품은 도시는 붉은 머스탱을 품으로 끌어당긴다.

깨끗이 다진 노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풍광, 평지와 오르막, 내리막이 조화를 이룬 도로, 21km(교량 부분 18km)에 이르는 넉넉한 구간 거리 등 인천대교는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314마력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가슴에 품은 머스탱을 타고 이곳을 안전하게 지나가라고 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게다가 공중에 떠 있는 도로(상판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해수면에서 72m나 된다)에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머스탱의 44.3kg·m에 이르는 최대 토크는 3000rpm에서 터져나오기에, 제한속도를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넉넉한 파워를 경험할 수 있다. 굳이 과격한 드라이빙을 하지 않아도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달리는 것만으로 아메리칸 머슬의 여유로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고속의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한없이 좁아지는 시야가 여유를 두고 달리면 광대하게 넓어지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구름의 모양은 어떤지, 저 멀리 떠 있는 배는 어떤 배인지 등. 버릴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는, '속도를 늦추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진리로 바뀌 생각할 수 있다.

인천대교를 건너 송도에 들어오니 내가 달려온 길이 어떤지 되돌아보고 싶어진다. 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닌데, '범죄자는 범죄 현장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 갑자기 왜 떠오르는지... 인천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션스코프로 향했다. 보통의 전망대 하면 높은 건물이나 탑을 생각하는데, 오션스코프는 컨테이너로 구성된 나지막한 구조물로 되어 있다.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 인천이 물류도시라는 점에서 영감을 얻어 컨테이너를 소재로 삼았다고 한다. 소재는 컨테이너에 불과하지만 예술적 영감은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오션스코프는 2010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건축 조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인천대교를 보러 전망대에 갔는데 전망대가 더 볼만한 경우라니...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보다 주선자가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상황이다.

머스탱을 타고 달려온 인천대교를 바라보니,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달려왔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머스탱처럼 강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려왔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려면 어떤가? 기어를 6단에 넣고 레드존까지 회전수를 올려 쉴 새 없이 달려왔다면 잠시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면 될 일이다. 노멀 모드로 무난하게 달려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인생 모드를 '스포츠+'나 '트랙'에 맞추고 머스탱처럼 격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는가?

드라이빙으로 한껏 달아오른 흥분은 침으로 풀어야 한다. 송도 신도시는 첨단 경제 도시 이미지가 강하다. 번쩍이는 높은 건물과 반듯한 도로 등은 어느 도시와 다를 바 없다. 그 속에서 침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러한 걱정은 이내 떨어버릴 수 있었다. 송도 신도시 안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꽤 있다. 먼저 찾은 곳은 센트럴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분위기는 다르지만,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휴식 공간 차원에서는 '송도=뉴욕'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센트럴파크는 1.8km의 수로를 끼고 있는 수로 공원이자(국내 최초 해수공원이라고 함). 겨울에 찾아간 공원은 한적하고 고요하기만 하다. 여름의 공원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푸른 잔디와 나무, 수로를 그림처럼 떠다니는 배, 팔짱을 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연인들, 천진하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들. 겨울 공원은 생동감 넘치고 북적거리는 여름의 공원과는 완전 댄판이지만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 혼자 사색할 수 있는 고요함이 겨울 공원의 가장 큰 매력. 오들오들 떨리는 추위 속에서, 겨울 햇살에 파묻히면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진다.

송도는 독특한 건물이 많기로 유명하다. 센트럴파크 역시 개성 넘치는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빌딩 숲이 우중충한 잿빛 도시 이미지가 아닌 진짜 '숲'의 이미지를 전한다. 공원을 걷다 보면 그릇을 닮은 건물이 나온다. 세 개의 그릇이 모여 있다고 해서 이름도 '트라이볼(Tri-Bowl)'이다. 독특하고 신기한 형상인데,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라 짓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고 한다. 트라이볼은 복합 문화 공간 역할을 하므로 안에 들어가면 공연이나 전시회도 관람할 수 있다.

충분히 신 뒤 다시 머스탱에 올랐다.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섬인지라 외곽은 바다와 접해 있다. 이 말은 곧 해안도로가 있음을 뜻한다. 송도 신도시 서쪽, 잭니클라우스 GC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뻗어 있는 해안도로는 바다 쪽으로 백사장이 펼쳐진 그런 해안도로는 아니다. 일종의 제방도로다. 도로가 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고, 그 옆으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에 탁 트인 바다의 광대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직선으로 뻗은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리자니, 드래그 시합을 하고 있는 상상에 빠져든다.

오래전부터 드래그 레이스에서 자자한 명성을 누린 머스탱을 타고 있어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페달을 깊숙이 밀어붙인다. 엔진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분출되는 사운드의 밀도는 더욱 짙어지고, 바람이 머스탱의 붉은 몸체를 맹렬하게 훑고 지나간다.

머스탱이 도로 끝 하나의 점이 될 무렵, 그렇게 바다는 멀어졌다. 해안도로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솔찬공원이 나온다. 널찍하게 만들어놓은 나무 데크에 올라서니 근사한 조망이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대부도, 인천신항, 팔미도, 무의도, 영종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차를 탔으니 이제 또 한숨 돌릴 시간. 미추홀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미추홀은 백제의 초기 도읍지 이름으로 인천의 옛 지명이기도 하다. 미추홀공원은 역사적 이름에 걸맞게 공원의 분위기도 전통적이다. 오래된 건물과 십이지신상 등 마치 고궁에 와 있는 듯하다. 오래된 건물 뒤로 현대적 건물이 겹쳐 보이는데, 서로 어우러져 은근한 조화를 이룬다.

문득 고개를 들어 근처 빌딩을 보니 'Meet-You-All'이라 적혀 있다. '미추홀타워'라는 빌딩 이름을 재치 있게 영어로 옮겨놓은 것이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모두 만나자' 정도 되겠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드라이빙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빙은 강하고 힘이 들어가는 행동이다. '강'만 지속되면 금세 한계에 다다른다. '강' 다음에는 반드시 '약'이 따라와야 하는 게 인생사의 이치다. 송도 신도시는 '전망과 삶'이 있는 도시다. 드라이빙으로 한껏 달아오른 흥분을 찬찬히 가라앉힐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강약의 조화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Course Information

인천대교(영종도~송도) | 거리 21.4km | 소요 시간 12분  
 송도 해안도로 | 거리 2km | 소요 시간 2분



1 기하학적 느낌의 트라이볼 2 오션스콕프 3 송도 신도시에서 바라다보이는 인천대교 풍경과 올-뉴 머스탱  
 4 미추홀공원 전경 5 드라이브하기 좋은 한적한 해안도로 6 송도 센트럴파크 7 위풍당당한 올-뉴 머스탱의 모습



## 고객 접점 서비스를 책임질 딜러십 이한모터스 이승준 대표이사

다양한 자동차 문화가 공존하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딜러의 역할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가볍게는 판매만 하는 곳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딜러들은 자체적인 테크니션과 어드바이저로 구성된 전문 정비팀과 워크베이를 함께 취급한다. 이한모터스는 이런 시스템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지난해 포드 정식 딜러사로 합류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다. 이한모터스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이승준 대표이사를 만났다.

Editor 배영란 Photographer 김명성



**Q** 딜러사 대표가 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남다르다.

**A.** 그렇다. 직장생활과 개인 사업을 거쳐 33세라는 늦은 나이에 수입차 세일즈를 시작했다. 1998년 GM코리아 세일즈를 시작으로 2002년 포드자동차 광주지점(평화자동차) 지점장, 2004년 혼다자동차(일진자동차) 영업팀장을 거쳤고, 선인자동차와 함께 포드 본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2006년 포드자동차 광주 전시장(선인자동차) 서브 딜러가 되었다. 선인의 대리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다 메인 딜러 승격을 위해 포드와 지속적인 미팅을 했고, 의견이 수렴되어 2011년 1월에 승격했다.

**Q.** 수많은 수입차 브랜드 중 ‘포드’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가.

**A.** 처음 세일즈를 시작한 것이 GM이기도 했지만, 미국 자동차 브랜드에 관심이 많았다. 현재 포드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 5위권이며, 미국 브랜드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안전하고 좋은 차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포드의 비전이다. 이를 위해 동급 최고의 품질, 연비, 안전, 디자인, 기능 등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차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이 포드의 매력이다.

**Q.** 이한모터스가 출범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승격에 따른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운가.

**A.** 개인인 데다 모 기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영업력과 의욕만으로 딜러가 되기엔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또 딜러십은 자본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모든 기준은 임пор터(Importer)가 정하는데, 광주 지역도 포드코리아 본사가 다양한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기에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다. 이한모터스는 선인자동차의 서브 딜러로서서 경험이 풍부했고, 성실함이 바탕이 된 영업 노하우 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Q.** 메인 딜러가 된 후 영업적으로 이로운 점이 있는가.

**A.** 마음가짐의 변화인 듯하다. 서브 딜러로 일할 때와 달리 메인 딜러가 되니 업무에 책임을 질 수 있어

좋다. 고객 불만이 생기면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며 발생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니 업무에 자부심도 생겼다. 자연스럽게 입소문도 나서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

**Q.** 기존 북구 지아동에서도 서구 양동으로 광주 전시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판매와 서비스에 들어갔다. 전시장을 찾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A.** 새로 확장 이전한 광주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1300㎡, 지하 1층과 지상 3층, 총 4층 규모의 단독 전시장으로 총 10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해 매력적인 포드 차량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지상 2층에 마련한 서비스센터는 포드 차량 전문 테크니션, 어드바이저로 구성된 전문 정비팀과 총 다섯 개의 워크베일로 신속하고 편리한 A/S가 가능하다.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은 차량 상담에서 구매, 차량 점검 및 정비까지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컨설팅 룸과 각종 다과·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고객 라운지 등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포드 전시장을 찾은 고객을 위한 더 세심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Q.** 복수의 딜러사들이 다채로운 프로모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한모터스만의 프로모션이 있는가.

**A.** 새로 출범한 딜러라면 대부분 그렇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포드와 함께 이한모터스를 알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먼저 광주 지역민에게 포드가 일류 자동차 브랜드임을 알리고자 남다른 영업 전략을 수립 중이고, 광주뿐 아니라 순천, 여수, 목포, 진도, 완도까지 전남 각 지역에 딜리버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한모터스 전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0년 무상 오일 교환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전시장을 내방하는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Q.** 개인적으로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세일즈를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

**A.** 세일즈 세계는 언제나 치열한 경쟁이 따라붙는

레드오션이다. 남보다 한발 앞서며 고객을 만족시키고,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세일즈 세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일일 터. 수입차라는 프라이드도 있었지만 가방을 들고 차를 운전해가며 고객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이유 없이 좋았다.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보다는 자동차 세일즈가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 느끼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세일즈의 진수를 몸소 체득하고, 나의 직업이 천직이라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Q.** 이한모터스 직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전시장 한 곳에 걸터든 문구처럼 세일즈를 하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지금 계획한 일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봤으면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동기를 부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고객을 응대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품질이나 가격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곁에서 딱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세일즈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Q.** 2015년 이한모터스의 계획은 무엇인가.

**A.** 2015년과 2016년에는 전남 여수·순천(동부 지역)과 목포(남부 지역)에 판매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차례로 오픈할 계획이다. 이는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많은 고객에게 포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뿐 아니라 고객 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애프터서비스에도 세심히 신경 쓰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가 높은 포드를 많은 전남 지역민에게 알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Q.** 이승준 대표이사의 앞으로 목표도 궁금하다.

**A.** 현재 포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한모터스도 이에 발맞춰 성장하되 지역 시장점유율 6%대로 올려놓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 이윤에 집착해 고객과의 만남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서비스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포드 올-뉴 머스탱과 함께하는  
카레이서 박성은

# Love this way

누군가 '삶의 의미'를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어렵지 않게 명확한 답을 내놓을 것만 같은 사람이 있다.  
가슴 뛰는 유일한 일을 하기 위해,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달려온 그녀처럼.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이유미  
Cooperation Hugo Boss Women(02-2104-9000), SungJin fur(02-3438-6111),  
Talli(02-545-6887)



**또** 래 여자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 때 자동차 장난감만  
눈에 들어왔고, 스무 살에 슈퍼바이크에 폭 빠져 지내다  
카트 레이서를 시작했으며, 결국 카레이싱 선수로  
7년을 활동해왔다. '차는 내 운명'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박성은  
선수(SL모터스포츠팀)의 고집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듣고 나면  
생각은 달라진다.

"지금은 입문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많은 편이지만 제가 데뷔할 당시만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지금은 국내에도 서킷이 여러 곳 있고,  
F1도 치르는 수준이 됐지만 그때 연습할 곳도 없어 혼자 튜닝한 차를  
산에 가져가서 타고 그랬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탄탄대로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산에서  
차를 타다니, 가녀린 몸매의 그녀를 보면 더욱 상상이 가지 않는다.  
2007년 아주자동차대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카레이싱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녀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국내 모터스포츠  
환경도 열악했고, 데뷔 당시 국내 여성 카레이서가 세 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자 선수의 입지도 적었다. 하지만 카트, 오토바이, DDGT, 타임트라이얼  
대회 출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C.J.헬로넷  
슈퍼레이스와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 국내 서킷 경기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이 제대로 빛을 발한 건 2012년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다. 4전 결승 넥센N9000클래스에서  
쟁쟁한 남자 레이서들을 제치고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것. 이 기세를  
몰아 2013년에는 C.J.헬로비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에 각각  
슈퍼6000클래스와 GT클래스에 출전했다. 남성 레이서들이 장악하는  
상위 클래스에 도전장을 내민 것. 익숙해진 N9000클래스에 그대로 머물  
경우 최초로 시즌 챔피언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지만,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다. 당시 그녀가 나선 슈퍼6000클래스는 남자 선수도 제어하기 쉽지  
않은, 8기통 6200cc에 425마력에 달하는 스톡카를 모는 대회 최고  
수준의 클래스다.

그녀의 겁 없는 도전은 계속됐다. 2014년 5월에 열린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 'GT 아시아'에 첫 출전해 한국인 여성 최초로 페라리  
458 챌린지를 몰고 국제경기에 참가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스콧  
미아우(Scott Miao) 선수와 함께 대만의 '톱 스피드 레이싱팀' 객원  
멤버로 참여해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고배기량 차를 모는 것이 겁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성은 선수는

두려움보다는 실수에 대한 부담감이 먼저라고 답한다. 한 시간 넘게 25바퀴 이상을 돌아야 하는 카레이싱 경기는 단 몇 초의 순간이 등수를 좌우하니, 피니시 라인을 지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 “만약 슈퍼6000클래스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GT아시아에 출전해 페라리 458 쉐린지를 몰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겁내지 않고 선뜻 도전하는 것이 제가 카레이서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여러 대회에 출전하고 여러 차를 몰아봐야만 레이싱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과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번에 국제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죠. 일단 당장의 목표는 2015년 시즌이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질 텐데, 그때 좀 더 높은 배기량의 클래스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것이고요.”

여가 시간엔 주로 뭘 하나냐는 질문마저 레이싱에만 집중해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로 대신하는 박성은 선수. 다만 워낙 차를 좋아해 자주 차를 바꾸는 편이고, 드라이빙을 즐기기 때문에 장거리 코스도 마다하지 않고 부러 자처한다니, 말 다했다. 촬영을 위해 직접 레드 컬러 올-뉴 머스탱을 끌고 한강으로 나서는 동안에도 차 이야기는 계속됐다.

“달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스포츠카에도 관심이 많아요. 차의 속도감이 좋아도 내구성이 든든해서 너무 가볍지 않은 것을 선호하거든요. 머스탱 역시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에 탄탄한 하체를 겸비한 차입니다. 머슬카이기도 하고, 남자의 차라는 인식이 있지만 여자가 타도 충분히 멋진 스포츠카예요.”

철학자 알랭 바디우(Alain Badiou)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둘이 있다는 후사건적 조건 아래 이루어지는, 세계의 경험 또는 상황의 경험’이며 ‘개인인 두 사람의 단순한 만남이나 폐쇄된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구축해내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의 관점이 아닌 둘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삶이다’라고. 한마디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이 아닌 ‘둘의 경험’이 이루는 세계가 곧 사랑이라는 것. 맞다. 사랑이 어려운 것은 둘의 일심동체를 꿈꾸기 때문은 아닐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박성은 선수의 삶이 곧 알랭 바디우가 말하는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그녀는 그저 한 번의 승리를 위해 레이싱을 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이것 하나예요. 심지어 이성을 만날 때도 이렇게 설레지 않거든요. 그게 저를 계속 차에 오르게 하는 이유죠.” 이 세상에 오직 둘, 레이싱과 그녀가 이뤄가는 세계가 앞으로 더 기대되는 이유다.



# Happy New Tech! Wishing you a Joyous FOCUS!

새해가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 해를 이끌어갈 신제품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각종 기술을 집약해 정상에 오를 IT  
제품의 향연이 포드 포커스와 함께 펼쳐진다.

Editor 임선이 Photographer 전세훈

##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1** CF에 아이유, 유혜열이 나와서가 아니다.  
이 헤드폰이 주는 감동은 원음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와 4만~10만Hz에 이르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70mm 초대구경 다이내믹  
드라이버에서 울려 퍼지는 사운드가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MDR-Z7 E. 소니  
**2** 섬세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엄선한 각  
스피커를 튜닝, 테스트해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음향을 재현할 수 있도록 페어링했다. 이중 귀  
덮개는 울림과 진동을 감소해 사용자에게 진한  
감동을. 맞춤 디자인이 음악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 피델리오 X1. 필립스



## 편안함에 포커스를 맞추다

**1** 100주년을 기념해 라이카에서 처음 선보인 미러리스  
카메라. 통알루미늄을 장시간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정교한  
가공으로 보디에서 일체감이 느껴진다. 1630만 화소, 고감도  
풀HD 해상도 영상 촬영 기능을 탑재했다. LEICA T. 라이카  
**2** 파워샷 G7 X로 또다시 그 모습을 선보인다. 기존  
G 시리즈의 하이 퍼포먼스와 S 시리즈의 콤팩트함을  
추구했다. 터치까지 가능한 180도 회전형 LCD 모니터는  
촬영을 즐겁게 하고, Wi-Fi 리모트 촬영 기능을 채용해  
스마트폰에서 조작이 가능하다. PowerShot G7 X. 캐논  
**3** 외관상 D-lux는 라이카 혈통을 지녔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전이 숨어 있다. 라이카 카메라 중 가장 빠른 고성능  
Leica Summilux 렌즈를 탑재했으며, 화각 손실이 없는  
멀티 어스펙트 센서로 다양한 이미지 포맷을 최적화된  
결과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선 원격 촬영도 가능하다. 라이카



돌릴 수밖에 없는 매력에 빠지다

- 1 손대면 톡(Talk)하고, 손목 위에서 통화할 수 있다. 메시지나 알람을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 알려줘 바로 확인 가능하다.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춰 비가 와도, 땀을 비 오듯 흘려도 걱정 없다. SmartBand Talk SWR30. 소니
- 2 이거 하나면 필기하고, 메모하고, 스케치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 펜촉 두께가 1.9mm 그리고 1024단계 압력 감지가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의도하지 않게 스크린에 닿아도 방해받지 않는다. 간편하게 쓰고, 간편하게 USB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다. 이 팔방미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iPad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 뱀부 스타일러스 파인라인. 와콤
- 3 훨씬 가볍고 콤팩트해졌다. 외형은 변했지만 탁월한 화질과 사운드는 변하지 않았다. 액션캠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방수 케이스가 없어도 생활 방수는 물론 -5°C의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 액션캠 미니 HDR-AZ1. 소니
- 4 더 강력하고, 더 진화했다. 대형 스테레오 마이크를 탑재해 고음질을 자랑하며, 회전형 LCD와 내장 스탠드로 핸드프리 촬영은 물론 셀프 촬영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더욱 넓은 사운드 다이내믹 레인지로 돌아온 오디오캠 VIXIA mini X. 캐논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할 순간, 손은 눈보다 빠르다

- 1 2015년 애플이 공개할 신제품 중 눈에 띄는 맥북 에어. 새로운 맥북 에어가 나오기 전, 명실상부 애플 맥북의 1위 자리를 고수할 맥북 에어. 애플
- 2 마우스를 대신하는 스마트한 터치패드로 마우스 같은 내비게이션 기능은 물론 터치 제스처와 펜 입력 등 마우스로 할 수 없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뱀부 패드. 와콤
- 3 확실히 아이폰 5S보다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2세대 64비트 데스크톱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든 A8 칩을 탑재한 iPhone 6. 애플
- 4 테크 제품은 한 달이 지나면 구형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소니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은 얼리어답터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깜짝 놀랄 만한 방수력과 리모트 플레이를 통해 PS4 게임을 즐길 수 있다. Xperia Z3. 소니



보이는 것보다 광대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웅장하다

- 1 작지만 3W 출력으로 스피커도 업그레이드되고, 뒷면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해 MP3 증폭기로도 사용 가능한 렉슨의 대표적인 라디오 제품 미니돌맨. 렉슨 by 아리온샵
- 2 평소에는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하다 생생한 사운드를 즐기고 싶을 때 스피커의 뒷부분(우선 서라운드 스피커)을 원하는 곳에 배치하면 현장감 넘치는 음향을 즐길 수 있는 무선 홈시어터 피델리오 E5. 필립스



Cooperation

- APPLE(080-333-4000)
- CANON(1588-8133)
- LEICA(WWW.LEICA-STORE.CO.KR)
- LEXON by ARAONSHOP(WWW.ARAONKOREA.COM)
- PHILIPS(1600-6245)
- SONY(1588-0911)
- WACOM(02-557-3894)

# For Ski Holiday

슬로프 위에서 신나게 즐긴 것까지는 좋다. 다음 날 급격하게 노화한 듯한 피부에 놀라고 싶지 않다면 비포 & 애프터 케어를 확실히 할 것. 스키어와 보더들이 체크해야 할 스키 시즌 뷰티 가이드.  
 Editor 김미라 Photographer 김명성, 유정환

1 라벤더 오일과 글리세린이 건조한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라벤더 하이드레이팅 미스트. **JURLIQUE** 2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하며 수분 공급과 진정 작용을 하는 샴푸, 세안, 보디 워시 올인원 클렌저. 샌들우드와 재스민의 아로마틱 향이 인상적이다. 샌들우드 앤 자스민 퓨어 캐스틸 솜. **DR. BRONNER'S** 3 건조한 눈가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블랙 파인 퍼밍 아이 크림. **KORRES** 4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수분 크림. 냉압시킨 마카다미아넛 오일이 피부 진정 효과를 준다. 카멜리아 너트 페이스 하이드레이팅 크림. **AESOP** 5 블랙 씨드 성분을 함유해 항산화 효과를 발휘, 외부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자외선 차단제. 스킨 릴리프 유브이 프로텍터 SPF 50+ PA+++ **PRIMERA** 6 뉴질랜드 천연 허브 성분에서 추출한 고보습 립 밤. 하루 종일 자극 없이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트릴로지 로즈힙 오일 립 밤. **TRILOGY**



고급은 POC 레티나 화이트 실버, 글러브는 인하비먼트 제품, 모두 무라사키스포츠

## BEFORE SKI

하루 종일 찬 바람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피부. 기초공사부터 탄탄히 하고 슬로프에 나서자. 이러한 비포 케어는 며칠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피부를 보호해줄 수분 장벽을 탄탄히 쌓아야 하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선 미리 각질 제거를 해놓는다.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도 각질이 두껍게 쌓인 피부에는 흡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겨울에는 건조하고 민감해지기 쉬우니, 자극 없이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할 것. 에센스, 스킨, 로션 등에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고르면 도움이 된다. 스키장으로 떠나는 디데이에는 한 번 더 클렌징에 신경 쓴다. 각질이 남아 있으면 자외선에 피부가 얼룩질 수 있다. 클렌징 후에는 수분 공급을 철저히 한다. 오일로 유분막을 만들어주는 것도 잊지 말자. 찬 바람은 피부 기능을 둔화시키고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건조함에 취약한 눈가 피부에도 아이 크림을 듬뿍 바를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자외선 차단이다. 하얀 눈 위에서는 자외선이 반사돼 평소보다 피부에 도달하는 양이 많아진다. 여름철 해변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SPF 지수가 높은 것을 선택한다. 스키복 주머니에 휴대가 간편한 자외선 차단제를 넣어두는 것은 필수. 미스트, 립밤도 꼭 챙겨 수시로 덧바른다.



## AFTER SKI

붉은기가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특별한 진정 케어가 필요할 때. 애프터 케어도 비포 케어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각질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스키장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민감해진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스팀 타월을 올려두는 정도로 그칠 것. 그런 다음 수분 크림을 듬뿍 바르고 마사지하면 피부의 혈행을 돕는다. 유난히 붉은기가 심한 곳은 오일을 활용할 것. 여기에 욕심을 더 내 효과를 배가하고 싶다면 밤을 노리자. 밤사이 지친 피부는 세포를 빠르게 분열해 재생력을 높이려고 하므로 자기 전 재생 크림이나 세럼 제품을 바르거나 수면 팩을 활용한다. 스키장에 다녀온 뒤 며칠 동안은 계속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손상된 피부를 복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 반신욕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돕는 것도 좋다. 특히 찬 바람에 콜라겐섬유 변성이 일어나거나 자외선에 기미나 잡티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안티에이징과 미백 효과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단시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앰플 타입 혹은 마스크 팩 제품을 사용한다.



### Cooperation

AESOP(1800-1987), AMORE PACIFIC(080-023-5454), AVENE(1899-4802), BURT'S BEE(080-308-8800), NEUTROGENA(080-023-1414), DR. BRONNER'S(02-3414-1109), D.r.G(080-085-8245), JURLIQUE(02-3446-1882), KATE SOMERVILLE(02-547-8985), KORRES(02-6205-8989), MURASAKISPORTS(02-518-1818), PRIMERA(080-023-5454), SHISEIDO(080-564-7700), SK-II(080-023-3333), SULWHASOO(080-023-5454), TONYMOLY(080-356-2222), TRILOGY(02-565-1130), VERITE(080-023-5454), 9 FOOT(080-024-5000)

1 민감한 피부에 사용해도 좋은, 캐머미일 성분을 함유한 부드럽고 자극 없는 클렌징 제품. 딥클렌징 워터. **VERITE** 2 100시간 이상 발효시킨 아르간오일 덕에 보습과 탄력에 효과적이다.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100 시간 크림. **TONYMOLY** 3 슈퍼 히알루론산 배합으로 피부 각종 깊숙이 수분을 전달해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SHISEIDO** 4 화이트닝 기능 인증을 받은 자외선 차단제. 비타민 E, C 성분이 들어 있는 DNA 캡슐이 활성 성분을 방출해 기미나 잡티를 효과적으로 케어한다. 더블유에스 덤데피션선 유브이 로션. **SK-II** 5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미백 성분인 백삼사포닌과 백화사실초가 미백 효과를 지속시킨다. 샴팩 립. **SULWHASOO** 6 강력한 자외선 차단과 워터프루프 효과의 스포츠 선블록, 가볍게 발라도 자외선 걱정 없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울트라 쉬어 스포츠 선 로션 SPF 50+ PA+++. **NEUTROGENA** 7 시어버터와 라이소 왁스의 결합으로 깊은 보습 효과를 준다. 버터 타입 텍스처가 입술 위에서 부드럽게 녹는다. 립 버터. **KORRES** 8 외부 자극으로부터 입술을 보호하고 천연 토크페롤이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유기농 립밤. 베이비 마일드 오가닉 립밤. **DR. BRONNER'S** 9 겨울철 찬 바람에 붉어진 얼굴과 트러블 흔적을 즉각적으로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크림. **D.r.G** 10 식물성 호르몬의 항산화 효과가 피부를 견고하고 탄력 있게 하며 세포 회복을 도와준다. 리페어 세럼. **BURT'S BEE** 11 젖산 성분이 각질을 정리해주고 PH 레벨을 이상적으로 유지해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한다. 고트 밀크 크림. **KATE SOMERVILLE** 12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부여하는 마스크 팩. 잠자는 동안 사용해도 좋다. 마스크 아베장 이드라마. **AVENE** 13 피부를 진정시키고 집중적인 수분 공급 효과를 주는 데나무 수액 마스크. 앰플 한 개를 펴 바르고 젤 마스크를 10~15분간 사용한다. 모이스춰 바운드 리프레이싱 마스크. **AMORE PACIFIC** 14 발의 노폐물을 씻어낸 후, 발가락부터 종아리까지 마사지하듯 흡수시키는 제품. 멘톨 성분과 라벤더 오일 등이 피로 해소 효과를 주고, 건조한 발을 촉촉하게 한다. 에너자이징 에멀전. **9 FOOT**

# Winter Scents

실내에 우아한 온기를 더해줄 홈 프래그런스 제품을 꼽았다.

코끝에 향기가 스칠 때마다 선물한 이의 마음까지 오랜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Editor 김미라 Photographer 김명성

Cooperation 캔들오(www.candleo.co.kr, 031-713-0718),

레호(www.1ershop.co.kr, 070-8840-6688)



1 패키지 디자인이 독특한 보티보의 소자이아터 컬렉션. 자작나무, 베틀버, 앰버, 자몽 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진 고저스 그레이 라인은 따뜻한 무드를 선사하기에 제격. 천연 왁스로 만들었음에도 방향력이 강하다. 고저스 그레이 트레프조이드 틴 캔들 **보티보 by 캔들오** 2 오렌지 블로섬, 라일락, 재스민, 레몬, 바닐라 머스크 향이 어우러져 부드럽고 프레시한 느낌을 준다. 천연 재료와 고급 에센스 오일을 엄선해 만든 오렌지 블로섬 & 재스민 룸스프레이, **안티카 파마시타 by 캔들오** 3 이국적인 재스민 향이 잔잔하게 발향되는 디퓨저, 욕실 등에 지속적인 향을 원할 때 추천한다. 내추럴 아로마 오일을 첨가해 자연친화적이다. 룸디퓨저, **카르마카멧 by 레호** 4 신선한 꿀과 은은한 홍차 향이 조화를 이루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만다린티 향은 임신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만다린티 데코레이티브 틴 캔들, **아류스 by 캔들오** 5 입으로 바람을 불지 않아도 우아하게 초를 끌 수 있다. 불꽃을 덮는 종 모양 덮개가 달린 캔들스너퍼, **캔들오**

6 난초와 장미의 관능적 향취가 분위기를 릴랙스하게 바꿔주는 블랙 오크드 향의 11oz 대형 캔들. 10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블랙커런트 컬렉션, **아류스 by 캔들오** 7 구어먼트 계열의 보더워크 향은 캐러멜 향 솜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가법지 않은 안정감을 준다. 45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중형 캔들. 포트폴리오 컬렉션, **아류스 by 캔들오** 8 페퍼민트를 베이스로 한 유칼립투스의 시원한 향은 비염과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다. 퓨어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다운 아로마틱 글라스 캔들, **카르마카멧 by 레호** 9 고급스럽고 은은한 브랜드 향으로 유명한 세다프랑스. 이 중 레드 앰버 향은 가테니아, 프레지파니, 오렌지플라워, 진저, 제라늄, 머스크, 바닐라 등의 조화가 살아 있는 장미를 맡는 듯하며, 달콤한 잔향이 인상적이다. 자렛컬렉션, **세다프랑스 by 캔들오** 10 캔들을 직접 태우지 않고 조명의 열로 왁스를 녹여 향을 낼 수 있는 제품. 향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져 넓은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캔들 전용 워머, **캔들오** 11 심지가 길어지면 그늘음이 생기거나 연기가 나므로 적정 길이인 6mm로 자르는 것이 좋다. 캔들 입구와 심지의 거리가 멀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캔들 워드러머, **캔들오** 12 캔들의 순수한 발향을 원한다면 성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블랙커런트 컬렉션에 포함된 성냥, **아류스 by 캔들오**

# Oh, My Diva!

매혹적인 목소리의 그녀들과 함께한다면 홀로 나선 드라이빙이라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남다른 존재감으로 뛰어난 음악성을 선보이는 디바들의 음반을 소개한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유정환 Cooperation Sony Music(02-530-0900), Universal Music(02-2106-2000)

## 1 1989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보이자 다섯 번째 정규 음반 <1989>는 컨트리 톤 팝스타였던 그녀를 미국 팝 음악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거듭나게 한 앨범이다. 기존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테일러 스위프트만의 새로운 팝 음악을 완성, '그녀의 가장 도전적이고 놀라운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미국 아이튠즈 차트 1위,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 수 1억 건을 돌파한 메가 히트 싱글 'Shake it Off'와 함께 타이틀곡 'Welcome To New York', 일렉트로·미니멀 팝 싱글 'Blank Space' 등 그녀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트랙으로 구성했다.

**Taylor Swift, 1CD 13곡(Deluxe 19곡), Universal Music**

## 2 My Everything

2013년 싱글 'The Way'로 빌보드 싱글 차트 톱 10에 진입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아리아나 그란데. 4옥타브를 넘나드는 음역대로 팝, R&B, 힙합,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는 차세대 디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두 번째 앨범 <My Everything>은 전작에 비해 다양하고 모던한 사운드가 특징이다. 싱글로 선공개해 52개국 아이튠즈 1위, 빌보드 싱글 차트 2위, UK 싱글 차트 1위, 유튜브 조회 수 1억 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끈 'Problem'을 비롯해 디제이 제드가 프로듀서로 참여한 'Break Free', 위켄드가 피쳐링을 맡은 'Love Me Harder' 등이 수록돼 있다.

**Ariana Grande, 1CD 12곡(Deluxe 15곡), Universal Music**

## 3 The Essential CESARIA EVORA

1941년 카부 베르드라는 세아프리카 섬나라에서 태어난 세자리아 에보라는 카부 베르드 지역의 슬픔과 한을 노래하는 독특한 음악 장르 '모르나(Morna)'를 상징하는 가수다. 일곱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했으며, 열여섯 무렵에는 선원들의 숙소에서 노래하며 생계를 꾸리다 1970년대 카부 베르드를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다. 그녀는 1988년 <La Diva Aux Pieds Nus(만발의 디바)>로 세계무대에 데뷔하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2012년 그녀가 타계한 해에 발매된 <The Essential CESARIA EVORA>는 그녀가 남긴 디스크그래피 중 최고의 노래만 모아놓은 앨범이다.

**Cesaria Evora, 2CD 32곡, Sony Music**

## 4 Pure Heroine

2013년 최고의 신인이라 할 수 있는 로드의 정식 데뷔 앨범. 당시 16세의 그녀가 30분 만에 완성했다는 싱글 'Royals'는 3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미국 팝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여성 아티스트로서 빌보드 얼터너티브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것은 17년 만의 일이며, 16세 소녀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26년 만의 일이다. <Pure Heroine>은 중저음의 카리스마와 소녀의 발랄함이 돋보이는 'Royals'를 비롯해 두 번째 싱글 'Tennis Court' 등 10트랙이 수록되어 있다. 천재 소녀의 고혹적인 음색과 인상적인 노랫말, 깊은 감성에 흠뻑 빠져보자.

**Lorde, 1CD 10곡, Universal Music**



# Mustang Collection

머스탱 마니아라면 누구나 가슴 뭉 만한, 소장 욕구 200%의 머천다이징 아이템을 모았다.

Editor 강미라 Cooperation <http://merchandise.ford.com>



### 1 1:24 AL 1970 Ford Mustang Boss 302 Die-cast

1970 머스탱 보스를 상세하게 재현한 다이캐스트 키트. 블루 컬러 메탈 보디를 비롯해 휠과 다양한 부품이 드라이버와 함께 내장되어 있다. 17.99달러.

### 2 Ford Mustang Pinball Machine Pro Edition

마하 1, 코브라, 보스, 2015 올-뉴 머스탱 등 머스탱 역사의 상징적 차종과 함께 스릴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머스탱 핀볼 드라이빙 게임 머신'. 5195달러.

### 3 Ford Mustang Fifty Years Anniversary Solid Aluminum Sculpture

머스탱 50주년을 기념해 500개 한정 제작한 공예품. 마린 그레이드 알루미늄을 사용해 장인이 직접 핸드 폴리싱한 것으로, 제품마다 고유번호와 작가의 서명을 새겼다. 575달러.

### 4 Mustang 50th Anniversary Desk Clock

머스탱 50주년 기념 한정판 데스크톱 시계 & 온도계. 1965년 머스탱 모델의 엔진 사운드가 매 시간 울린다. 빛 센서를 탑재해 실내가 어두워지면 엔진 사운드 알람은 비활성화된다. 49.99달러.

### 5 Mustang - The First 50 Years Two-Disc DVD Set

1964년 최초의 머스탱부터 2015년 머스탱 GT까지. 머스탱의 모든 역사를 두 장의 DVD로 확인할 수 있다. 19.99달러.

### 6 Ford Longboard - Surfer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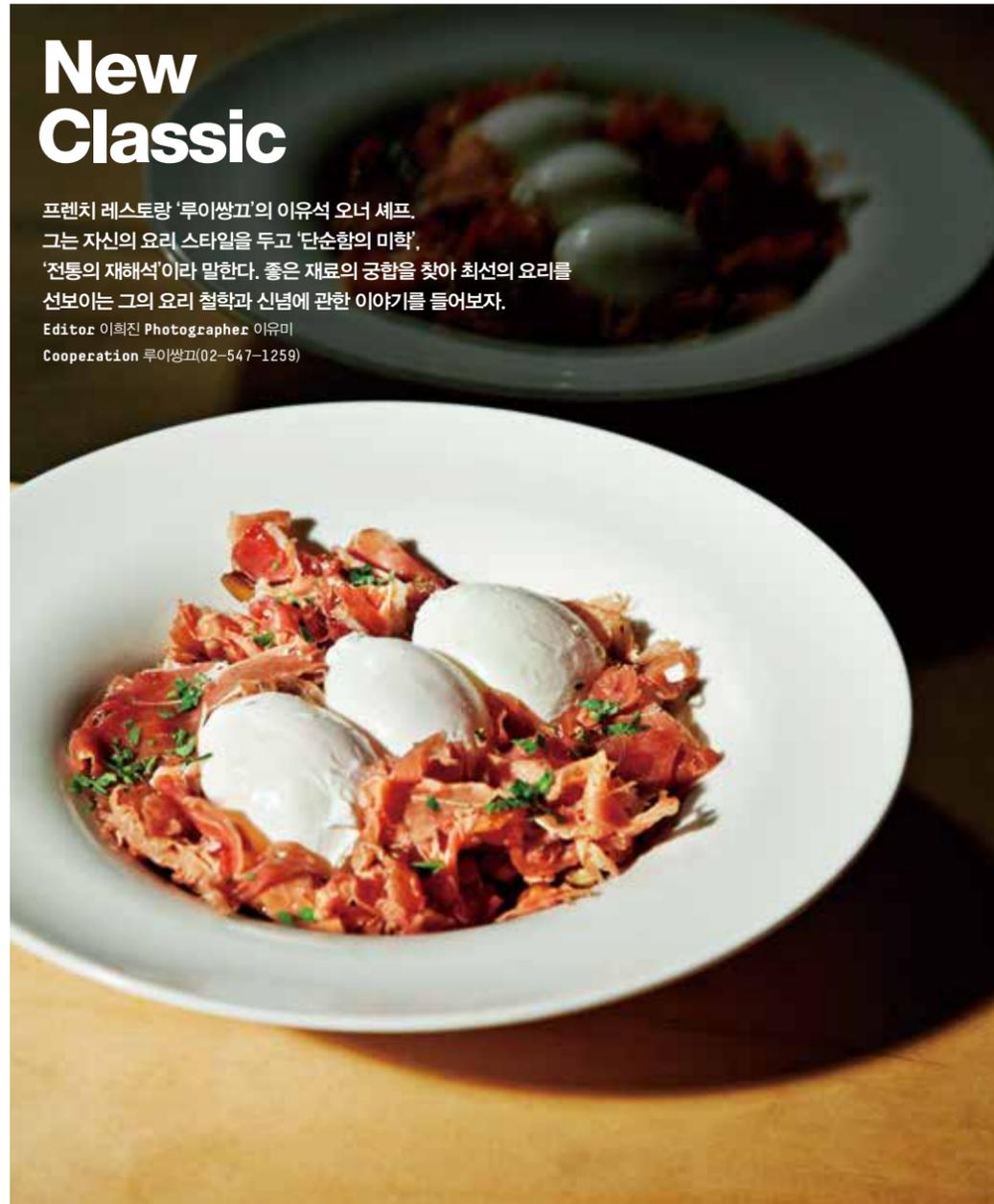
머스탱 50주년 기념 로고가 박힌 스케이트보드. 클래식 GT, 모던 GT, 아이코닉 289 등의 머스탱 엠블럼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단단하면서 유연한 나무로 만들어 내구성이 뛰어나다. 289.99달러.

### 7 Ford Mustang Business Card Case

머스탱 빈티지 로고가 그려진 명함 케이스. 강렬한 레드 컬러가 명함을 주고받을 때 개성을 한껏 드러내줄 것이다. 24.99달러.

### 8 BERG Ford Mustang Pedal Kart

2015 포드 머스탱에서 영감을 받은 어린이를 위한 카트. 넓은 너비의 타이어와 림이 안정적인 주행은 물론 기어 변경 없이 후진과 급정지 등이 가능하다. 시트와 스티어링 휠의 높이가 조정돼 네 살부터 열두 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549달러.



## New Classic

프렌치 레스토랑 '루이쌍꼬'의 이유석 오너 셰프. 그는 자신의 요리 스타일을 두고 '단순함의 미학', '전통의 재해석'이라 말한다. 좋은 재료의 궁합을 찾아 최선의 요리를 선보이는 그의 요리 철학과 신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Editor 이희진 Photographer 이유미  
Cooperation 루이쌍꼬(02-547-1259)

### 보케리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LA Boqueria)에서 먹은 음식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보케리아. 느타리버섯볶음 위에 돼지 허벅지살을 숙성시킨 허몽, 수란을 얹은 요리로 잘 섞어 먹으면 된다.



### 테린

프랑스 농가에서 유래한 '테린(Terrine)'은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편육을 연상시킨다. 맨 위 부위는 오리고기, 가운데는 푸아그라와 무화과, 하단에는 돼지 어깨살 등 각종 부위와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목이버섯을 섞었다. 겉은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 도자기 냄비에 담아 오븐에 넣은 뒤 중탕으로 익힌다. 보통 테린은 차갑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유석 셰프의 테린은 상온으로 맞춰 손님에게 내놓는 것이 포인트.



**버섯 두오모**

셰프가 혼신을 다해 만든 감자 튀레 위에 닭 모래집과 초리조를 볶아 올렸다. 맨 위에는 양송이버섯을 슬라이스해 돔 모양으로 만들어 시각적 즐거움까지 더했다. 이탈리아 피렌체 두오모(Duomo) 성당의 탑을 연상시키는 이 요리는 버섯으로 돔 모양을 만들어 '버섯 두오모'라 이름 붙였다.

**이유석**

프렌치 레스토랑 '루이쌍끄'를 운영하는 이유석 셰프. 단순함의 미학을 추구하는 그의 요리 스타일은 'Simple is the Best'로, 좋은 재료의 공함으로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요리 철학이다. 그 말을 들으니 이유석 셰프가 더 궁금해졌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요리를 배운 뒤 한국으로 돌아와 2010년 문을 연 루이쌍끄는 프랑스에서 불리던 이름인 '루이'와 숫자 '5'를 의미하는 '쌍끄'를 합쳐 오감을 만족시키는 요리를 선보인다는 의미를 지녔다. 그는 이곳을 오픈하기까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시장조사를 하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열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크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누구나 편안하게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심야식당의 컨셉으로 틈새시장을 노렸다. 보통의 레스토랑은 저녁 9시에 마지막 주문을 받고 그 시간이 지나면 손님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며, 2차로 많이 가던 와인 바의 요리가 약간 부실하다는 점을 그는 간과하지 않았다. 4년 전 처음 시도한 그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많은 사람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그리고 각국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루이쌍끄는 2012년 미국 AP통신, 영국 로이터통신이 강남을 대표하는 레스토랑으로 소개했고, 미국의 대표 레스토랑 안내서 《자갓세베이》가 뽑은 주목할 만한 레스토랑에 선정될 만큼 글로벌하다.

**Q 처음 요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A** IMF 외환 위기 때 취업이 잘되는 직업을 생각한 것이 요리사다. 조리예술학과 졸업 후 레스토랑에서 2년 정도 일하기도 했고, 복싱 체육관 코치로 일한 독특한 경험도 있다. 어떤 계기로 복싱 코치 일을 그만둔 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맛있는 거나 싹쓸 '먹고 오자'는 생각에 프랑스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났다.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유명한 레스토랑에 들르기도 했고, 요리의 메카를 몸소 체험하니 많은 것이 다르게 보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준비하고 2005년에 떠났다. 프랑스에서 3년 동안 라스트랑스, 랑브루아지 등 파리 미술관 3스타급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배웠다. 3년 정도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자 문득 스페인의 요리 문화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스페인어 책 한 권 들고 스페인으로 건너가 1년 동안 바르셀로나·라만차·발렌시아·대이나·알칸테 등지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익혔다.

**Q 최근 요리하는 마음자세는 어떤가?**

**A** 많은 셰프들이 창작 예술에 빠져 가끔은 본질을 잃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재료의 공함이 아닐까 한다. 맛을 봤을 때 본질적으로 느껴지는 힘, 단순하지만 전통의

재해석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요리에는 만드는 사람의 철학도 녹아 있어야 전체적인 맛의 조화와 문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문화 예술과 마찬가지로 음식도 시대를 반영하는 산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요리하는 것이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예술로 여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고객을 이해시키려는 암묵적 강요는 좋지 않다. 항상 좋은 재료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워생관념을 철저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마음에 새긴 말이 있나?**

**A** 친하게 지내는 셰프는 많지만 두 분의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 모던 한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레스토랑 '공두'의 한윤주 대표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게 한 말이다. '돈이 없으면 뭘 하든 벌거나 빌리면 되고, 끈 돈이 있으면 값으면 해결된다. 하지만 한번 꼬인 인간관계는 풀기 힘들다. 돈 문제가 사업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 조언이 당시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100% 공감한다. 그래서 돈을 좇기보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공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돈에 관해서도 철저한 편이라 거래처, 직원들 월급 등 지금을 약속한 날씨는 철저히 지키는 것도 나의 소신이다. 또 가끔 다른 레스토랑에 요리를 먹으러 가는데, 화려한 플레이트의 요리를 보면 '내 음식이 너무 투박하고 심플한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때 내게 신념을 갖게 해준 분이 신라호텔 서상호 총조리장이다. 그는 항상 내가 만든 요리가 너무 좋다고 말씀해주신다. 음식에 관해서는 몇 부리기보다 단순한 게 최고니, 흔들리지 말고 그 소신을 이어가라고. 이런 말들이 신념을 지키는 힘이 되곤 한다.

**Q 셰프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A** 셰프는 겉만이 들면 안 된다. 미디어에 비쳐지는 화려한 이미지만 보고 셰프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요리업계는 정말 전투적인 곳이다. 나는 설거지는 물론 온갖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셰프에 대한 로망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셰프라는 직업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힘들고 거친 일인지. 내 팔을 보면 상처가 많다. 불에 데고, 칼에 베이고, 찢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잠도 항상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재능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A** '봉고'라는 약기를 배우고 있다. 봉고의 자유분방함과 내면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느낌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남미 스타일의 라틴 밴드를 하나 만들었다. 밴드 이름은 '움브레스(Hombres)'로 '남자들', '사나이들'이라는 뜻이다. 사실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 결혼식에 축하를 해주려고

시작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다. '엘본더 테이블'의 최현석 셰프가 기타를 맡고,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가 버커션, 나는 봉고로 연주한다. 요리하면서 틈틈이 연습해 봄에는 거리 공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명한 뮤지션과 협업해 앨범도 내고 싶다. 아직은 멤버들의 반발이 좀 심하지만.(웃음)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서다. 음악과 음식은 교집합되어 있다.

**Q 앞으로 요리사로서 구체적인 계획과 이루고 싶은 소망은?**

**A** 루이쌍끄를 찾는 손님들과 주고받은 음식에 얽힌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맛있는 위로》라는 책을 냈다. 또 돌배기 아들을 위한 이유석의 이유식이라는 책을 준비 중이다. 내가 아들에게 만들어주는 이유식 레시피와 삽화를 넣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셰프라는 직업에 한계를 느껴 향후 5년 뒤에는 사업가로 성장하고 싶다. 국내에서는 루이쌍끄 2, 3호점보다는 세컨드 브랜드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레스토랑을 구상 중이다. 중국 상하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또 다른 루이쌍끄를 만나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빛고을 광주엔 숨어 있는 핫 플레이스가 많다. 무등산 너른 품엔 아름다운 박물관이 서 있고, 작은 골목길을 돌 때마다 유서 깊은 근대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커피 향기 가득한 여유와 편안한 침까지 더해지면 여행의 기쁨은 배가될 터. 우리가 포드 광주 전시장을 둘러본 후 광주를 여행해야 하는 이유다.

Editor 차승진 Photographer 김명성(양림동, 다이닝 다디오)

## 길 위에서 만난 광주의 멋



### 1 골목길 따라 근대 역사와 문화가 꽃피다 양림동 골목

구불구불 골목길 따라 걷다 보면 문화를 만나고, 근대 역사를 마주치는 곳이 있다. 광주 최초로 근대화가 시작된 양림동이다. 서양 선교사들이 정착해 살며 근대 문물을 빠르게 전파한 양림동은 근대 건축물과 전통 가옥이 서로 마주한 독특한 풍광을 자랑한다. 양림동 여행의 시작은 양림교회다. 광주에 세운 최초의 교회로 무려 11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양림교회 바로 뒤편에는 광주유형문화재 제26호인 오웬기념각이 자리해 있다. 네덜란드식으로 쌓은 회색 벽돌이 인상적인 서양식 건물로, 1919년 3·1운동 당시 대대적인 연설이 열린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양림동 양림산 기슭에 호젓하게 자리한 우일선 선교사 사택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미국인 선교사 우일선이 1920년대에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광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이다. 광주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 근대 건축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다. 이 밖에도 양림동 곳곳을 걸다 보면 어비슨 기념관, 수피아 여고, 이장우 가옥, 최승호 고택 등 역사의 세례를 받아 고풍스러움을 더한 건축물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70번길 6(양림교회·오웬기념각)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47번길 20(우일선 선교사 사택)  
**문의** 광주남구청 문화관광과 062-607-2331



### 2

#### 산수화 속 키 작은 집 의재미술관

의재미술관은 우리나라 남종 산수화의 마지막 대가라 불리는 의재 허백련 선생을 기념하는 곳이다. 사군자와 서예 등 허백련 선생의 시기별 대표 작품과 미공개작 60여 점을 비롯해 의재의 사진과 편지 등 각종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건축가 조성룡의 설계로 지은 의재미술관은 광주에 있는 건축물로는 유일하게 '한국건축대상'을 수상했다. '풍경 속 미술관'이라는 기본 콘셉트 아래 무등산 등산로의 지형적 요건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 공법으로 지었으며, 노출 콘크리트와 나무, 유리로 마감한 현대식 건물이 우아하면서 정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미술관 내부 로비에 들어서면 기다란 유리창이 눈길을 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무등산의 풍경을 근사하게 담아내는 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 된다.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중심사길 155 문의 062-222-3040



### 3

#### 그윽한 남도 문화의 향기를 찾아서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만약 아이와 함께 광주를 찾았다면, 광주는 물론 전남 지역의 민속문화를 둘러보고 싶다면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을 추천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광주와 전남 등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다채롭고도 풍부한 민속문화와 생활상, 공예품 등을 소개하는 곳으로, 지역문화의 원형을 널리 알려 그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산책', 민속공예를 배우고 민속생태마을을 탐방하는 '행복한 토요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니 참고할 것. 그윽한 남도 문화의 향기에 깊이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8-25 문의 062-613-5337~8



### 4

#### 무등산의 주경과 야경이 한눈에 다이닝 다디오

다이닝 다디오에는 카페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전면 유리창으로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탁 트인 실내에는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야외 테라스에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는 무등산, 옆으로는 양림산의 산세를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매주 월·수·금요일에는 연주회나 라이브 공연이 열린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낭만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남신학대학교에 위치한 카페 겸 레스토랑답게 다이닝 다디오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를 만날 수 있다.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헤이즐넛 라테, 화이트 모카 등 커피 음료는 물론 망고 아이스티와 자몽에이드, 그린티 라테와 루이보스티 등 다채로운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레스토랑 메뉴로는 해산물 오일 파스타와 매콤한 해물 크림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 하와이안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등이 인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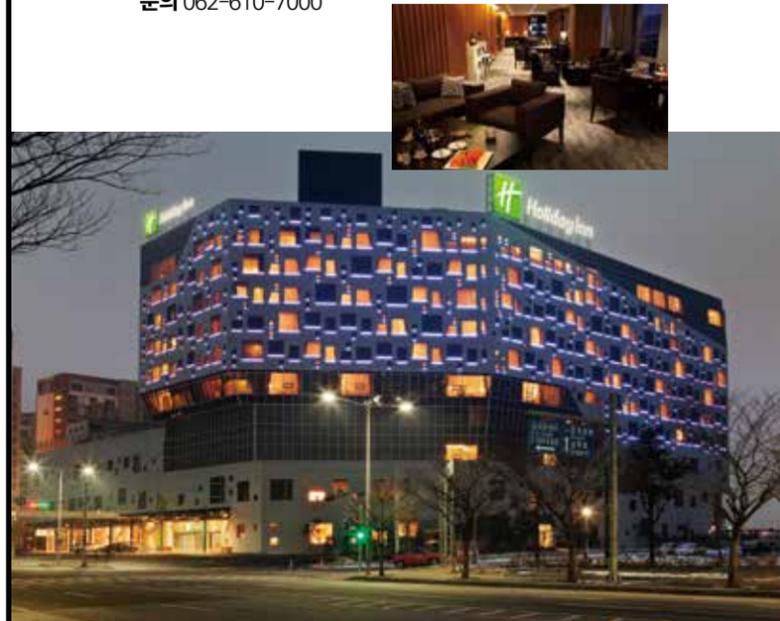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77 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 1층  
**문의** 062-676-1755

### 5

#### 심미의학 홀리데이인 광주

개장 4년 만에 명실상부한 광주 지역의 대표 호텔로 자리매김한 홀리데이인 광주. 전 세계 체인인 만큼 국제적 비즈니스 감각과 정성스러운 서비스, 탄탄한 팀워크로 투숙객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한다. 홀리데이인 광주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한국 전통 스타일의 온돌 스위트 등 12개 스위트 객실을 포함해 모두 205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최신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 비즈니스 센터 등을 갖춰 비즈니스와 휴식 공간으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리 에펠탑과 중국 상하이 동방타워 등 400여 점의 조명 작품 작업을 진행한 조명 전문가 알랭 귀로(Alain Guilhot)가 설계한 조명은 홀리데이인 광주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5  
**문의** 062-610-7000



# Ice Climbing

크램폰을 단단히 조이고, 아이스 툴을 찍으며 한 발 한 발 오르는 빙벽 등반의 계절이 다가왔다. 모험과 스릴을 즐길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도전할 일만 남았다. 초보자를 위한 빙벽 등반 입문 가이드.

Editor 김미라 참고 서적 《겨울산행과 빙벽등반》 정갑수 저, 열린세상 출판



## 기술과 판단력이 중요한 창의적인 레포츠

19세기 말 알프스의 모든 산봉우리를 등장하고,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지자 설벽과 빙벽 등 더 험난한 루트를 찾아 새로운 등산 방식을 시도한 것이 빙벽 등반 역사의 시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국내의 자연 폭포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서 가야 만날 수 있지만, 접근하기 쉬운 인공 빙벽장이 속속 생기고 있다. 최근 인기 있는 곳은 청송군 얼음골과 영동군 영동빙장. 겨울철 빙벽 등반 경기도 있는데, 청송군에서는 국제대회인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2010년부터 매년 유치하고 있으며, 영동군과 아웃도어 업체에서도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 아이스 클라이밍 박희용 선수가 2011년 아시아인 최초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다. 빙벽 등반은 온몸을 고루 사용하면서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스포츠다. 팔 힘보다는 크램폰(아이젠)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다리 힘과 유연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특징. 물론 손에 든 아이스 툴로 얼음을 찍어야 하므로 어깨와 등 근육도 많이 사용된다. 무엇보다 빙벽 등반의 묘미는 자신이 올라가야 할 등반 라인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나간다는 점이다.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판단력과 모험심도 필요하므로 힘보다는 요령과 테크닉이 크게 작용하는 흥미로운 스포츠다. 경험을 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데, 피켈을 어느 곳에 찍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확한 부분을 찾아 찍어야 얼음이 깨져 추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로프를 매달고 등반하므로 허공에서 1m 정도 미끄러지는 것을 말한다.

## 빙벽 등반의 보행 기술과 다양한 포지션 익히기

얼음 위에서의 보행은 크램폰을 부착한 후 모든 발톱이 얼음 면에 닿게 하고 몸무게를 앞쪽으로 쏠리게 한 다음 플랫폼 푸팅과 프런트 포인팅이라는 기술을 고루 이용해야 한다. 플랫폼 푸팅은 크램폰의 바닥을 사면에 붙이는 기술로 70도 이하의 경사면에서 취할 수 있는 보행 기술이다. 프런트 포인팅은 70도 이상의 경사면에서 기존의 발톱 10개 외에 앞쪽의 발톱 두 개를 이용하는 기술로 직벽이나 급경사지의 강빙 등반 시 활용한다.

아이스 툴은 정확하게 찍어야 하고 찍은 후 흔들면 안 된다. 아이스 툴을 사용할 때 연결된 손목 고리는 얼음을 타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아이스 툴을 떨어뜨려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다양한 포지션도 익혀야 하는데, 한 발로 프런트 포인팅을 취하고 다른 한 발로는 플랫폼 푸팅을 취하는 스리어클락 포지션, 수직 빙벽에서 다리를 약간 넓게 벌려 안정된 자세로 피켈을 멀리 찍는 엑스보디 포지션, 빙벽 중 작은 오버행을 넘을 때 취하는 몽키행 등이 기본자세다. 빙벽 등반은 처음부터 직벽을 타서는 안 된다. 경험을 쌓고 실력이 느는 만큼 한 단계씩 난이도가 높은 곳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보통 초보자들은 20m 정도 오르고 내려오면 탈진할 정도로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 육상으로 따지면 1200m를 전력 질주하는 셈. 그만큼 많은 힘과 운동량이 필요하므로 평상시 실내 암벽장에서 충분히 기초 훈련을 한 뒤 등반해야 한다. 국내 아이스 클라이머들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는 이들이 90% 이상이다.



## tip

### 기본 장비

- 1. 아이스 툴** : 얼음을 타격하면서 등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사가 완만한 얼음에서는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고, 미끄러질 때 제동을 가할 수 있다. 너무 뚱뚱해도 미끄러질 염려가 있고, 너무 예리해도 다칠 위험이 있다.
- 2. 크램폰** : 빙벽 등반에서 사용하는 크램폰은 발톱이 12개로 날카로워야 한다. 앞발톱과 두 번째 발톱의 각도는 얼음을 얼마나 잘 뚫고 들어가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 3. 로프** : 등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 로프 설명서에서 가장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충격력이다. 보통 충격력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 4. 헬멧** : 등반 전이나 후에도 곧바로 헬멧을 벗지 않는 것이 위험을 줄여준다. 헬멧의 탄력성과 견고함 등을 평가해 표준을 정하는 UIAA 승인 표시가 있는 것을 구입한다.

### 배울 수 있는 곳

- 1. 오투월드** 실내 인공 빙장 오투월드에서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4주 20시간 과정 빙벽 교실을 연다. 한 달 과정 외에도 수강생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빙벽 등반 강습과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ww.o2o2.co.kr](http://www.o2o2.co.kr)
- 2. 코오롱등산학교** 코오롱등산학교는 등반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과 함께 실전 교육을 통해 빙벽 등반 기술을 알려주는 동계반을 운영한다. 빙벽 등반 외에도 설악산에서 설상 등반 기술을 배우는 과정도 있다. [www.mountaineering.co.kr](http://www.mountaineering.co.kr)
- 3. 한국등산학교** 암벽 등반의 기초 과정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실전 등반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빙설벽 등반 집중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www.alpineschool.or.kr](http://www.alpineschool.or.kr)
- 4. 한국산악회** 한국산악회관, 수락산, 화천 탄산빙장, 운악산, 설악산 등지에서 동계 등반의 기초부터 빙벽 등반까지 배울 수 있는 동계반을 운영한다. [www.cac.or.kr](http://www.cac.or.kr)
- 5. 김용기등산학교** 정구등산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 암벽 등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3일 과정의 빙벽반을 운영한다. [www.kimcs.com](http://www.kimcs.com)



그림 같은 해안선에 펼쳐진  
**야스 링크스  
아부다비 골프 클럽**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야스 링크스 아부다비 골프 클럽'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골프장이다. 야스 섬 서쪽 해안에 자리한 이 골프장의 모든 홀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샷을 날릴 수 있다. 골퍼라면 평생 한 번쯤 라운드를 경험하고 싶은 세계적 명성의 골프장으로 떠나보자.

Editor 이희진 Cooperation 야스 링크스 아부다비 골프 클럽(+97(0)2-810-7777)





아부다비의 야스 섬에 위치한 '야스 링크스 아부다비 골프 클럽(Yas Links Abu Dhabi Golf Club)'은 해안가에 위치해 경치가 빼어나다. 특히 스페인 안달루시아 양식으로 지은 클럽하우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골프장의 모습이 압권. 세계적인 골프 코스 디자이너 '카일 필립스(Kyle Phillips)'가 링크스 스타일로 디자인한 이곳은 총 7450야드, 파72, 18홀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스코틀랜드 해안 마을 특유의 전통적 링크스 코스의 표본을 보여준다. 카일 필립스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의 링크스 코스인 '킹스반스'를 비롯해 프랑스의 '모르폰테인'과 네덜란드 해리 콜드의 '할버 섬 코스 아부다비', 스페인 대표 코스인 '발데라마'의 리모델링 작업 등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골프 코스를 디자인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골프 코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지역적 특색을 지키면서 디테일을 잘 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야스 링크스 아부다비 골프 클럽의 파4 1번 홀은 복잡한 페어웨이와 기복이 심한 언덕을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시작점을 제공한다. 파5의 2번 홀은 이곳의 파5 중 가장 짧은 거리로 종종 거센 바람에 맞서야 한다. 언덕과 언덕 사이의 긴 협곡에 위치해 블로 아웃 벙커가 곳곳에 있어 스릴 넘치는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4번 홀부터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본격적인 라운드를 할 수 있다. 파5의 7번 홀은 프런트 그린 중 가장 길면서 독특한 홀로 평가받는다. 높은 언덕 끝에서 티샷을 날리면 골프 코스와 조화를 이룬 바다의 풍광이 한눈에 펼쳐진다. 바다 근처에 아름답게 펼쳐진 그린은 낮은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이 개방되어 있다.

해안가에 위치한 8번 홀은 경사가 완만한 언덕과 물가에 인접해 특별한 스릴을 선사한다. 볼이 자칫 중앙으로 빠지기 쉬우므로 샷을 날릴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 파4의 10번 홀은 언덕 아래에서 클럽 하우스로 이어지는 짧지만 굵이 진 코스다. 안정감 있는 드라이브를 한다면 정면과 오른쪽 벙커로 둘러싸인 그린에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16번 홀은 왼쪽에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 광활한 페어웨이가 펼쳐져 있어 극적인 재미를 안겨준다.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이름난 파3의 17번 홀은 그야말로 그림 같은 만을 형성하는 해안선을 끼고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풍광은 물론 드라마틱한 샷을 날릴 수 있는 조건으로 골퍼들에게 인기 있다. 야스 링크스 아부다비 골프 클럽은 스포츠 라운지와 두 곳의 노천 테라스, 그리고 별도의 만찬실을 갖춘 레스토랑 '바랑카'를 운영하고 있다. 수영장, 사우나, 프로 샵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라운드를 즐긴 후 휴식을 취하기 좋다.

# 리더의 존재감 키우기

마거릿 대처, 빌슨 만델라, 버락 오바마 등 존재감이 남다른 리더가 있다. 그들의 '책임자'다운 강한 인상은 많은 지지자를 낳았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실력을 성공으로 바꾸려면 자신의 잠재력을 어필할 수 있는 존재감이 필요하다.

Editor 강미라  
참고 서적 《리더의 존재감은 어디서 오는가》 실비아 앤 휴렛 저, 황선영 역, 진성북스 출판



**tip**  
**영향력 있는 리더 되기**  
**1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주위에 두어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신을 더 강하게 해줄 사람을 곁에 두어라.  
**2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라**  
 리더가 공을 독차지하면 지지자를 빨리 잃게 된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리더의 진실성과 공정함이 빛을 발한다.  
**3 아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라**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지 마라.  
**4 겸손한 모습을 보여라**  
 자신의 실수, 실패, 결점을 인정하는 것보다 당신이 직원들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 진정한 리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존재감은 실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목표 수치를 달성하고, 변화를 일으킬 아이디어가 있다 해서 모두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이미지가 바로 진정한 리더들이 갖춘 '존재감'이다. 존재감 있는 리더는 사람들이 리더를 따라 불속으로 뛰어올라 가기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진중함이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리더의 존재감은 어디서 오는가》의 저자 실비아 앤 휴렛이 이끄는 인재혁신센터(CTI) 연구팀은 고위 간부 268명을 포함해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존재감을 평가할 때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어떤 점을 주목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리더의 존재감이 세 가지 요소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행동하는 방식(진지함)', '말하는 방식(의사소통)', '보이는 방식(외모)'이다. 이 중 핵심 요소는 '진지함'인데, 설문조사에 응한 고위 간부 268명 중 67%가 진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인재혁신센터는

'진지함'에 대해 다음 여섯 가지 핵심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참고할 것. ① 심한 압력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 ②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결단력과 적극성 ③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용기 ④ 감성 지능 ⑤ 명성과 평판 ⑥ 비전과 카리스마.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①의 태도인데, 기업이나 사업이 극도의 압력을 받을 때 당신에게 깊이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직원들의 지지를 유도할 자신감과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시련에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을 잊지 말자.

## 차별화된 능력과 개성을 드러내라

앞서 말한 '말하는 방식(의사소통)', '보이는 방식(외모)'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먼저 의사소통 기술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떠올리는데, 리더는 항상 무대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짧은 이메일을 보내든, 복도에서 잠시 스친 직원에게 가벼운 코멘트를 던지든, 고객을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든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야 한다. 말할 기회란 그것이 길든 짧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대신 간결하게 말해야 하며, 데이터로 현혹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활용하고, 유머와 농담을 가미하며, 자신감 있는 보디랭귀지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외모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경쟁자와 자신에게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알리는 방법이 된다. 또 젊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자주 웃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주 웃는 것은 행복과 호감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일하기를 원한다. 남들에게 에너지를 선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다. 전자가 리더의 존재감에 도움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참모습과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금물이다. 차별화된 능력과 개성이 곧 꾸미지 않는 당신만의 존재감이 될 것이다.

# Ford Dealer News

포드의 딜러사별 다양한 뉴스를 모았다.

Editor 이희진



## 헤인자동차, 포드 마포 전시장 오픈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헤인자동차가 작년 7월, 서울 마포 전시장을 오픈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구리와 의정부, 미아, 노원에 이어 헤인자동차가 다섯 번째로 오픈한 마포 전시장은 총면적 730㎡ 규모로, 포드 및 링컨 브랜드의 전 차종 전시 및 시승이 가능해 방문 고객들의 상담과 체험, 시승이 상시 가능하다. 마포 전시장이 위치한 합정 지역은 메세나폴리스 등 대규모 복합 시설 개장과 인근 흥대 상권 확장 등의 호재에 힘입어 유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부도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마포 전시장 오픈을 통해 마포, 은평, 서대문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 내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딜러들을 자동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 고객들만의 독특한 니즈를 이해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로 육성해 고객과 교감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헤인자동차는 마포 전시장을 통해 서울 서북부 지역 고객들과 더 많이 교감하고 포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수입차 판매와 고객 서비스에서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 포드 원주 서비스센터 대규모 확장 이전 예정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사 더파크모터스는 강원도 지역을 담당할 새로운 대규모 정비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좋은 차, 안전한 차를 판매하는 동시에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와 믿을 수 있는 A/S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원주 서비스센터를 강원도 및 중부 내륙 지방을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확장 이전하기로 했다. 약 4,958㎡의 규모로 간단한 수리부터 사고차량까지 모든 수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될 새로운 포드 원주 서비스센터는 2015년 2월 내 완공을 목표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원주시 관설동 전시장 인근 부지에 공사 중이다. 새 서비스센터의 부지는 중앙고속도로 및 원주 외곽순환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며 연결도로인 5번 국도도 확장 예정이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도 갖췄다. 새로운 정비 공장이 완공되면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 일대의 포드코리아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드 원주, 더파크모터스 전 직원 원주치악마라톤대회 참가

2014년 11월 23일, 원주치악마라톤대회에 더파크모터스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가해 체력을 다지고 도심 곳곳을 달리며 포드 브랜드를 홍보했다. 원주치악마라톤대회는 원주시가 주관하고 원주MBC에서 주최하는 강원지역의 대표 마라톤행사로 12회째를 맞았으며, 매년 참가자가 늘어 250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참가했다. 대회는 Half, 10km, 5km 세 종목으로 원주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서원대로, 강변로, 영서고등학교 삼거리 등 원주시내 주요 도로를 달려 되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 Ford News

Editor 이화진



## 모녀를 위한 특별한 유방암 클래스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 개최

포드코리아는 지난 10월 17일과 18일, 모녀와 함께하는 특별한 유방암 예방 클래스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Pink Warriors Class)’ 행사를 포드 신사 전시장에서 개최했다. 포드자동차의 글로벌 유방암 퇴치 캠페인 ‘2014 워리어스 인 핑크(Warriors in Pink)’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한 클래스는 유방암 예방의 첫 단계가 유방암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모녀 간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고 그 속에서 유방암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직 유방암 전문의가 진행한 ‘유방암 지식 클래스’와 유방암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보는 ‘모녀 킥플로가 클래스’로 진행했다.

20주년을 맞은 ‘워리어스 인 핑크’ 캠페인은 포드자동차가 진행해온 글로벌 유방암 퇴치 프로그램이다. 포드코리아는 2013년 이 캠페인을 국내에 처음 도입해 ‘시승 기부 프로그램’, ‘유방암 예방 클래스’ 등 자동차 회사로서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기획한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SNS 팬들과 떠나는 소셜 캠핑 3탄’ 성황리에 마쳐

포드코리아는 지난 10월 25일과 26일, 포드코리아 페이스북(www.facebook.com/fordkorea) 이벤트 응모를 통해 선발한 60명을 초청해 가평 라벤트리에서 ‘소셜 캠핑’ 행사를 진행했다.

2012년 포드 올-뉴 이스케이프 출시에 맞춰 진행한 최초의 소셜 캠핑과 2013년 ‘가을로 떠나는 소셜 캠핑’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소셜 캠핑 행사는 ‘나만의 포드를 만나다’라는 테마로, 포드 차량에 대한 정보 전달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포드의 역사와 차량에 대해 알 수 있는 특별한 스토리로 구성했다. ‘포드 골든벨 퀴즈’, 팀별 포드 차량 소개

영상 만들기 ‘디스커버 마이 포드’ 등 다양한 미션 프로그램을 마련, 참가자들이 포드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인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포드코리아 노선희 이사는 “자동차업계 최초로 SNS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두 번의 소셜 캠핑에 이어,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포드를 알아갈 수 있는 미션과 프로그램으로 꾸며 재미와 의미를 함께 담았다”며,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이번 소셜 캠핑 3탄 역시 포드코리아와 SNS 포드 팬들 간 소통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기회였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 소셜미디아가 대중과 소통하는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4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 후원 대상자 발표

포드코리아가 11월 27일, ‘2014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2014 Ford Motor Company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 program)’의 후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선정된 단체를 초청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포드코리아는 이날, 2014년 후원 대상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이들이 포드 환경 프로그램의 후원을 통해 진행할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4년에는 서울의 심장인 ‘한강’ 주변의 중요 지역에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체험학교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녹색환경운동을 비롯해 총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포드 환경 프로그램의 심사를 담당한 이화여대 성효현 교수는 “2014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지원 기간이 과거 대비 세 배로 확대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하며 다양하고 참신한 환경보호 아이디어가 두각을 드러냈으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지속적·창의적인 활동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뻐했다”며, “앞으로도 포드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이 더욱 제고될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 종료

포드코리아는 본격적인 추위를 대비해 겨울철 필수 항목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는 포드의 점검 서비스인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Winter Service Campaign)’을 실시했다. 2014년 12월 27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은 전국 포드 서비스센터에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했다. 포드의 마스터 테크니션이 참여한 이번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부동액/브레이크액, 파워오일 교환 15%, 엔진오일, 미션오일, 배터리 교환 10% 할인 혜택을 비롯해 쿠폰 다운로드를 통해 ‘더 워크 패키지’를 1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었다. ‘더 워크 패키지’는 엔진오일과 오일 필터 교체, 타이어 위치 교환, 오일류 보충을 비롯한 27개 항목의 종합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행사 기간동안 방문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사은품도 증정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서비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국 포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 얻을 수 있다.



# Ford Line Up

\*재원은 2015년 1월 기준



## 2015 FOCUS

	Trend	Sport/Titanium
엔진형식	2.0 TDCi	2.0 TDCi
트랜스미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더블클러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더블클러치)
배기량(CC)	1,997	1,997
최대 출력(ps/rpm)	140/3,750	163/3,750
최대 토크(kg m/rpm)	32.7/2,000~3,250	34.7/2,000~3,250
구동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공차 중량(kg)	1,535	1,535
복합 연비(km/L)	17	17
도심 연비(km/L)	15.2	15.2
고속도로 연비(km/L)	20.1	20.1
CO <sub>2</sub> (g/km)	113	113
등급	1	1

## 2015 TAURUS

	2.0 SEL/2.0 Limited	3.5 SEL/3.5 Limited	SHO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Ti-VCT 엔진	V6 3.5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3,4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292/6,500	370/5,500
최대 토크(kg m/rpm)	37.3/3,000	35.1/4,000	48.4/3,500
구동 방식	FWD	FWD	AWD
승차 정원(명)	5	5	5
공차 중량(kg)	1,890	1,900	2,020
복합 연비(km/L)	10.4	9.2	8.2
도심 연비(km/L)	8.8	7.9	6.9
고속도로 연비(km/L)	13.3	11.7	10.5
CO <sub>2</sub> (g/km)	171	193	220
등급	4	5	5



## 2015 MUSTANG

	2.3 EcoBoost	GT 5.0 V8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I-4 엔진	5.0L Ti-Vct V8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기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기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4,951
최대 출력(ps/rpm)	314/5500 (Coupe, Convertible)	422/6500 (Coupe, Convertible)
최대 토크(kg m/rpm)	44.3/3000 (Coupe, Convertible)	54.1/4250 (Coupe, Convertible)
구동 방식	RWD	RWD
승차 정원(명)	4	4
공차 중량(kg)	1,680(Coupe), 1,725(Convertible)	1,750(Coupe), 1,795(Convertible)
복합 연비(km/L)	10.1	업데이트 예정
도심 연비(km/L)	8.8	업데이트 예정
고속도로 연비(km/L)	12.4	업데이트 예정
CO <sub>2</sub> (g/km)	175	업데이트 예정
등급	4	업데이트 예정



## 2015 ESCAPE

	2.0 SE/2.0 Titanium	1.6 SE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1.6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1,5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180/5,700
최대 토크(kg m/rpm)	37.3/3,000	25.4/2,5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FWD
승차 정원(명)	5	5
공차 중량(kg)	1,785	1,660
복합 연비(km/L)	9.2	10.6
도심 연비(km/L)	8.1	9.4
고속도로 연비(km/L)	11.2	12.7
CO <sub>2</sub> (g/km)	192	166
등급	5	4

## 2015 FUSION

	1.5 EcoBoost	2.0 EcoBoost	2.0 Hybrid
엔진 형식	직렬4기통 1.5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2.0L iVCT 옛기스 사이클 엔진, 영구자석 교류(AC) 동시식 전기모터, 리튬이온 배터리, 제동에너지 재생 시스템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전자제어식 무단변속기(eCVT)
배기량(CC)	1,498	1,999	1,999
최대 출력(ps/rpm)	179/6,600	234/5,500	143/6,600
최대 토크(kg m/rpm)	25.4/2,500	37.3/3,000	17.8/4,000
구동 방식	FWD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5
공차 중량(kg)	1,585	1,645	1,710
복합 연비(km/L)	11.8	10.3	17.9
도심 연비(km/L)	10.1	8.9	18.4
고속도로 연비(km/L)	14.7	12.7	17.4
CO <sub>2</sub> (g/km)	149	172	92
등급	3	4	1



## 2015 EXPLORER

	XLT	Limited
엔진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Ti-VCT 엔진
트랜스미션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294/6,500
최대 토크(kg m/rpm)	37.3/3,000	35.3/4,000
구동 방식	F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7	7
공차 중량(kg)	2,130	2,230
복합 연비(km/L)	8.9	7.7
도심 연비(km/L)	7.8	6.7
고속도로 연비(km/L)	10.7	9.4
CO <sub>2</sub> (g/km)	200	235
등급	5	5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11개의 전시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1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퀵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웍 2015년 1월 기준



## SHOWROOM

서울	삼성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2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9	02-535-3800
	미아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1층	02-6355-1000
	노원 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6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포드빌딩	02-6928-3000
	방배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2 정산빌딩 1층	02-6929-3000
	영등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02-6941-3000
	마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	02-6420-1000
경기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14-2004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빌딩 1층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22-1000	
인천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257	032-832-0001
대전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042-823-2000
충남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2-0007
부산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8	051-758-0075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55 센텀Q	051-741-5114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2	053-766-2000
경북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7	054-285-8899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차악로 1320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55번길 31	033-646-2300
제주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15	064-759-9888

##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6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3661-0011
	삼성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2	02-3443-4500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4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9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포드빌딩	02-2039-3001
경기	북부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77-4	02-6370-1000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01-7004
	일산 지정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81	031-913-2913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030-1000	
인천	인천 간석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417	032-863-6080
	인천 구월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471-6080
대전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해천로 22	042-585-5484
충남	천안 서비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3-0009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62-9	051-758-0046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32	051-715-2000
경남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3003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70-8897-4840
대구	대구 북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51	053-355-7668
	대구 수성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0755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20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52-5400
강원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차악로 1320	033-762-0041
	강릉 지정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642	033-641-9213
제주	제주 지정 서비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남로 7	064-759-1472

# 유럽에서 탄생한 새로운 포드 디젤세단을 만나보세요.

“포드 포커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Polk사 선정)\*\*

1948: 포드, 첫 디젤 엔진을 개발하다

2000: 포드, 첫 듀라토크 엔진을 선보이다



2013~2014: 163마력, 34.7kg·m 토크의 강력한 드라이빙 성능을 자랑하는 포커스 디젤

2013~2014: 20.1km/L, 뛰어난 연비의\* 포커스 디젤

## TDCi FOCUS 디젤

동급 디젤세단보다 뛰어난 연비와 마력 그리고 토크까지, 이 모든 것을 'fun-to-drive' 패키지에 담았습니다. 20.1km/L의 연비를 자랑하는 포커스 디젤을 지금 가까운 포드 전시장에서 만나 보십시오.

\*수입 2.0 디젤 C제코먼트 세단 기준 (프리미엄, 고성능 모델 제외)

\*\*위 내용은 Ford가 규정한 단일 차량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에 의해 자동차량이 바뀌거나, 플랫폼이 공유된 차량은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2년 기준 Polk 신규 국제 자동차 데이터에 등록된 다른 버전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초 02)535-38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영 051)758-0075	부산해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포커스 2.0 TDCi : 배기량 1,997cc 공차중량 1,535kg 자동6단 복합연비 17km/L (도시연비:15.2km/L, 고속도로연비:20.1km/L) 1등급 복합CO2배출량 113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80-300-3673, 02517-4357 ※ 전국 27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ford-korea.com



DON'T CRACK UNDER PRESSURE



**TAGHeuer**

SWISS AVANT-GARDE SINCE 1860

**TAG HEUER CARRERA CALIBRE 1887**

모든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태어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그의 원동력은 인간의 통계에 도전하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태그호이어와 같이, 호날두는 그의 분야에서의 모든 한계를 뛰어 넘고 결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품 및 AS 문의 태그호이어 부티 청담점 02-548-6020~1 롯데호텔 소공점 02-776-9018 [www.tagheuer.com/kr](http://www.tagheuer.com/kr)  
 갤러리아 EAST 수원점 천안점 대전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강남점 영등포점 노원점 월드컵점 대구점 울산점 창원점  
 부산 서면점 부산 센텀시티점 부산 광복점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경기점 충청점 부산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입구정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천호점 킨텍스점 대구점 AK플라자 분당점 수원점 대백프라자 명보사